

6부

청계피복노조의 결성

인터뷰 6회차

2020년 4월 27일(월) 14:00~17:30

전태일 친구들



1. 장례 준비

이수호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빠짐없이 오시고, 걱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기억하기 싫거나 말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기 생각이나 감정 또한 숨김없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 인터뷰의 뼈대가 되었던 『전태일평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처럼 분신항거 이후 메디컬센터로 갔는데 치료가 힘들다 해서 명동성모병원으로 옮긴 다음 정말 마지막까지 저항을 하시다가 그날 저녁 10시에 돌아가시는 부분까지 평전의 내용이고, 마지막은 우리들에게 부탁한 유언, 유서가 돼버린 말씀이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뒤 일주일이지요. 일주일 만에 장례가 치러지고 바로 이어서 11월 27일에 청계피복노동조합. 당시로 보면 그 짧은 기간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에 청계피복노동조합부를 결성하는 조직적 성과를 이루어 냅니다. 그 부분도 너무나 극적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노동운동하는 입장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도 정말 평범한 한 여인이자 어머니였고, 삼동친목회를 중심으로 한 친구들도 노동운동에 대한 의식을 갖고 계획해서 추진하는 경우도 아니고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추스르고 또 목적을 달성하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됐는지 궁금한 점이 많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진행하는데 함께 해주신 작가님을 비롯해서 촬영팀들, 우리 이숙희 위원장님. 특히 오늘은 이양구 작가님, 은유 작가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이 함께 참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기념관의 심부름꾼으로 그동안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수호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승철 이승철입니다.

김영문 반갑습니다. 김영문입니다.

최종인 최종인입니다.

임현재 이사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임현재입니다.

이수호 예.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평전은 전태일이 병원에서 어머니에게 자신의 일을 이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는 장면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 계신 어떤 친구는 병원에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고, 어떤 친구는 다른 사정으로 현장에는 없었다고 한 지난 증언이 있었죠.

어떻든 태일이는 어머니에게 부탁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다시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죠. 사망이 확인된 후부터 장례식을 진행하기까지 정말 많은 사연과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태일의 죽음을 망각 속으로 묻어버리고 싶은 사람들은 한시라도 서둘러서 장례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겠죠.

이에 대해서는 어머니께서 전태일의 뜻대로, 삼동회와 전태일이 요구했던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저항을 하면서 버텼었죠. 전태일의 사망 이후 정황들에 대해서 그 당시의 상황이나 선생

님들의 생각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말씀을 하실 때 참고하실 내용은 최종적으로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어디서 누구에게 소식을 들었는지. 지난 증언에 따르면 당시 임현재 선생님은 구치소에 계셨고 김영문 선생님은 돌아가서 현장에 매여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소식은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의 느낌이나 그 당시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는지.

또 빨리 장례를 치르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머니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버티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기억이나 들은 이야기가 있다든지. 그리고 어머니께서 장례 조건으로 제시한 평화시장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내건 8개 요구사항이 있었죠. 어떤 과정에서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물론 이건 삼동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들은 어떻게 알게 됐고, 장례 전까지의 생각들은 어땠는지 그때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오늘은 종인 씨부터. 그때 가장 앞장서서 했으니까.

최종인 13일 1시 20분에 태일이가 분신을 통해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그다음 저는 2차 데모를 하다가 경찰서에 연행되었는데 거기서부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국제부 차장이라는 사람이 저하고 인연이 됩니다.

이수호 경찰서에서?

최종인 네. 경찰서에 찾아와서 어떻게 된 거냐며 녹음기를 들이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하기를 우리 재단사 친구들이 수천 명 있다. 그동안 전태일이가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개죽음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하고 인터뷰를 끝내요. 저는 그대로 경찰서에 있었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됐는데 판사가 그러더라고요.

이수호 즉심에 회부된 거죠?

최종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제가 즉심에 회부됐는데 판사가 너희들의 심정은 충분히 알지만 그래도 법규 위반이니까 벌금으로 때린다고. 벌금이 그때 일주일 살 정도인가 봐요. 제가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중부서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유치장에서 하루 종일 자고 난 그 이튿날 저녁엔가 김성길이라고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저를 면회한 뒤에 벌금을 내줬어요. 그리고 식사하러 가자고 해서 갔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죽은 줄 몰랐어요.

이수호 그럼 전태일 열사 돌아가신 그다음 날이네?

최종인 네, 그다음 날이죠. 그때까지 돌아가신 줄 모르고 식사하러 가자고 해서 갑니다. 그리고 밥 먹다가 김성길이 저한테 충격을 던집니다. 죽었다고. 그래서 어딴냐고 하니까 메디칼센터에 있다가 성모병원으로 옮겨서 거기에 있다고 듣는 순간 제가 통곡을 하죠. 그렇게 김성길이라고 인연이 돼서 노조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바로 성모병원에 찾아갔어요. 성모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계셨어요. 몸은 자그마하고 정이 많아 보이는 분이시더라고요.

이수호 어머니는 그때 처음 보신 거예요?

최종인 처음 봐요. 저는 처음 보는데, 저를 딱 껴안고 어떻게 된

거냐고 하셔서 저도 같이 어머니를 껴안고 한 첫 마디가 “저희들이, 친구들이 끝까지 투쟁할 거니까 어머니 담대해지세요” 그리고 “어머니, 저희들을 믿으세요”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로 모시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어머니를 모셔왔는데 그때 어머니를 처음 만나게 된 거죠. 그다음에 가족들도 만나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작은아버지란 사람이 부산 노동부에 있었다고 그랬지?

이승철 근로감독관.

최종인 그 양반은 우리를 보면서 야단을 쳤죠. 너희들 때문에 죽었다고 몰아붙였어요. 가족들은 피해 있었는데 어머니가 저희를 위로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어머니하고 병원에 있었어요.

점차 사망에서 상황을 알게 되고 기자들도 이 문제를 계속해서 신문에 보도하고, 사회적으로 사건이 커지게 됐어요. 그래서 도시산업선교원이니 교회니, 학생들과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전태일의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대학생들이 평화시장 실태에 대해 얘기 좀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집니다. 인문대학인가 여기 동숭동 서울 법대 후문을 통해 학생들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평화시장 실태가 이렇다, 여차여차해서 그게 태일이 죽게 된 과정이다라고 설명했죠.

이수호 그게 돌아가시고?

최종인 이튿날. 삼 일날 됐나.

이수호 이튿날. 사흘째죠?

최종인 사흘째. 서울대학교 가서 실태를 보고했죠. 그때 저는 말도 잘 못하는데 계속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그 상황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병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계속 버티고 있었고, 그 당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이 문제에 깊이 개입을 했어요.

이수호 한국노총.

최종인 한국노총. 노총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노동청인 줄 알았고.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학생들도 왔다 갔다 하고. 한국노총 김성길이가 그때부터 저와 같이 활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한국노총에 윤영재 씨라는 사무총장이 어머니한테 태일이 뜻을 살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노조를 결성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것 같아. 어머니도 노조라는 걸 잘 몰라요. 보통의 어머니입니다. 한국노총 쪽에서 어머니하고 노조를 만들어서 뜻을 살려야 된다고 대화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 사람들하고 행동을 같이하고 있었던 거고. 여기까지가 태일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병원에 가게 된 동기와 과정입니다.

이수호 예. 우선 거기까지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분신항거하신 이후 두세 시경에 다른 남은 분들과 함께 시위를 하고 경찰서에 연행이 되었다가 그다음 날 나오셔서 어머님 만나고. 그리고 대학교 집회 가서 증언도 하고.

최종인 어디 찾아갈 데도 없고 해서 저랑 제일 가까웠던 이승철이를 찾아갔어요. 승철이한테 난 힘이 너무 약하니까 우리가 행동을 같이해야 된다고 지원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같이 가서 어머님을 만났어요. 그 때부터 삼동친목회 회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런 과정이 있

었습니다.

이수호 자. 지금 자연스럽게 이어받아서 승철 씨가.

이승철 저는 기억해요. 13일날 데모를 못 한다고 해서 다시 공장으로 왔고. 그날 11월 13일날 제품이 많아 엄청 바빴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잠을 냈다가 데모를 못 하게 돼서 공장에 돌아가 있는데 3시 안 돼서 신진철이가 왔어. 그런데 내 기억으로 바바리를 들고 왔었던 것 같아. 전태일이 바바리를.

나는 통일상가의 밑에 가게가 있고 가게 위에 다락을 낸 공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우리는 13명이 근무를 했어요. 나까지 14명. 마지막 끝 쪽에 사람이 올라갈 만한 구멍이 있는데 거기로 진철이가 올라왔어. 개가 말하는 모양이 장난기 비슷하게 말하거든. “야, 승철아” “왜?” 그랬더니 “태일이 타버렸다” 이러더라고.

이수호 표현이?

이승철 표현이 죽었다, 분신했다도 아니고 타버렸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뭘 타?” 그랬더니 아니 개가 불 질러서 타가지고 지금 병원에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순간 지금 생각이 아니라 그때 생각으로는 ‘아니 화형식만 하기로 했다가 못 하게 돼서 안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죽었지?’ 그런 생각이 들었죠. 진철이는 잠깐 더 있다가 가고.

삼동회 모임을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영문이 같은 경우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태일이가 다 연결을 해놔서 모임 날짜도 ‘다음 모임 모시에 한다’고 얘기되면 연락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진철이가 종인이라고 조병섭이라는 친구 둘이 잡혀갔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데 그 상황은 우리가 연락할 수도 없었어. 삼동회라고 해도 구심점도 없었고. 삼동회 회원들이 어디에서 근무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나서서 모이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종인이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집에 가서 기다렸어. 그런데 그날 안 왔어요.

이수호 경찰서 가서 안 왔고.

이승철 예, 그래요. 종인이하고 나하고 기억이 조금 달라. 애가 구체적으로 안 하는 건지 두루뭉술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다음 일요일은 노는 날이었어. 그런데 저녁에 왔더라고. 벌금이 5천 원 나왔는데 한국노총의 국제부 차장이라는 사람이 벌금을 내줘서 나왔다고 그 사람한테 자기가 뽕을 좀 쳤다네. 그러니까 조직이 엄청 큰 줄 알고 자기 벌금을 내줬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하는 말은 경찰서에서 나와 바로 병원으로 갔다고 하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내 기억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종인이랑 같이 자. 그러면서 태일이가 성모병원에 있다는 거야. 나는 그때는 태일이가 메디컬로 갔는지 어디에 있는지 상황을 전혀 몰랐죠.

그다음 날 아침 먹고 10시쯤 된 것 같아. 내 기억으로 분명히 들어서 성모병원으로 갔어. 아까 이야기했듯이 태일이 친구라고 하니까 체구가 작은 어머니가 오시더라고. 그러고 젊은 친구들 대여섯 명이 쫓아 나와서 너희 새끼들이 태일이 죽었다고 책임지라고 난리가 났어. 어머니가 나서서 막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동네 청년들도 끼어 있더라고. 그 동네 208번지인데 동네 사람들이 철거민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 따로 직업도 없고 거칠었어요. 어머니가 그 사람들을 나서서 말린 거지.

그래서 어머니가 나하고 종인에게 태일이 얼굴을 보겠느냐고 해. 그때는 난 죽은 사람을 전혀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겁도 나고, 또 보면 너무

무서울 것 같고. 그런 마음에 “어머니 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종인이가 어머니에게 가만히 몇 마디 위로할 건네고 난 후 우리는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나왔죠.

그런 후에 우리는 동화상가에 신기호 선배한테 갔어요. 반가워하더라고. 그런데 “야, 태일이가 그렇게 죽은 건 니들이 회장시켜서 죽었으니까 니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분명히 종인이하고 같이 갔어. 하여튼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오는데 심정이 아주 복잡하더라고. 그리고 종인이가 자기는 아무래도 성모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하며 그리로 가고, 나는 집으로 오고. 종인이는 그날부터 우리 집에 안 오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계속 좀 더 해요?

이수호 아니, 거기까지. 우선 전태일 죽음을 알게 됐을 때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정도. 우리 승철 씨는 그날 근로기준법 화형식이 무산된 걸로 알고 그 현장에는 또 없었잖아요. 일이 바빠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이승철 네. 돌아왔죠. 돌아와서 일을 했죠.

이수호 우리 영문 씨는 전태일하고 사업장도 가깝고 늘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면서 분신항거할 때도 같이 있었는데. 태일이가 그렇게 되고 나서 병원으로 실려가자 급한 마음에 어머니부터 모시게 되는데, 그다음 얘기.

김영문 그리고 나서 메디컬센터로 가니까 응급실에 있었나 봐요. 병원에 갔는데 각 상가 책임자들이 여기저기 시끌시끌하더라고. 그리고 응급실에 들어가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만 들어갈 수 있고 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한 30분, 거의 1시간 정도를 기다려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고. 마음 한편으로는 공장도 걱정되고. 사실 친구들 누구라도 있었으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다렸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니 저는 공장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공장이 워낙 바쁜 시기였던 때라 일만 했죠. 가끔 일 끝나고 성모병원에 한 번씩 들르는 정도였지. 나는 그때 55일 동안 이 친구들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지를 않았어요. 모임에서 몇 번 보고, 이야기하고 그냥 그렇게 헤어졌기 때문이죠. 아마 나랑 누군가 좀 가까운 친구들이 있었다면 무엇이든 같이하자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혀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는 합류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수호 어떻게 영문 씨는 바보회 때부터 같이했고. 태일이가 삼각산에 갔다 다시 시장에 와서 삼동친목회 할 때도 같이했으니까 가장 애기도 많이 하고. 그럼 영문 씨는 어머니를 처음 뵈 게 언제예요?

김영문 어머니는 바보회 활동 때 봤습니다. 바보회 할 때 전태일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창동 집에 갑니다. 그때 아마 5~6명 정도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수호 창동 집으로?

김영문 네. 정말 순수한 어머니. 우리가 회의를 하니까 보시면서 그러더라고. 배고플 거다 하시면서 국도 끓여주시고, 새벽에 교회 가시는 모습도 저는 기억합니다. 그 후에 보니까 역시 교회 쪽과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날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방송을 들었다고 하시면서 나오시더라니까

요. 거기가 원래 밭도 있고 야산 비슷하게 생겼어요. 진짜 딱 거기 도착해서 입구로 올라가니까 문 앞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막상 얼굴을 보니까 저도 입이 다 말랐더라고. 어머님 말씀이 어떻게 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했죠. 저는 그 순간에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그렇다고 그걸 설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수호 병원으로 실려갔으니까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도 몰랐잖아요.

김영문 그렇죠. 저는 병원에 실려가는 것까지만 보고 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마음이 급해서 어머니한테 “택시를 타고 가시죠” 그랬는데 “아니다, 버스를 타고 가자”고 해요. 물론 돈이 없어서 그러셨는지 어쨌는지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버스 안에서 대화를 하는데 잠깐 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했던 이야기는 잊히지 않아요. 꿈속에서 어떤 도사 같은 분이 어찌고저찌고해서 아마 죽지는 않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면서 같이 버스를 타고 온 거죠.

이수호 그래서 함께 병원에 도착했는데 못 들어가게 하니까 다시 공장으로 가게 됐는데.

김영문 그래서 공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이수호 이제 전태일이 돌아가셨구나 하고 알게 됐잖아요.

김영문 예, 그 내용은 밤늦게. 아마 방송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

니다.

이수호 방송을 듣고 알게 됐는데 그때 느낌이나 심정은.

김영문 어휴, 그건 정말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친구들이라도 만나서 이야기하면 어떻든 서로 의논도 하고 아마 그랬을 텐데 그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속으로 이거 큰일 났구나, 마음만 아프고 그래서 선배들을 만나 이야기를 했어요. 태일이 죽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나는 그 선배 말이 잊히지도 않아요. 일은 이미 벌어졌는데 어떻게 됐든 아마 그쪽에서 처리를 하지 않겠냐, 이 말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이수호 우리 임현재 선생님께서는, (웃음)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일종의 사고 때문에 돌아가실 때 현장에 없었고 경찰서 유치장에 계셨으니까. 돌아가시고 난 뒤의 상황에도 유치장에 계셨는데. 혹시 태일의 죽음을 어떻게 알게 됐고, 그때 따로 고립돼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임현재 당시 생각으로.

이승철 잠깐, 그때 혹시 양승조가 면회 와서 말해주지 않았어?

임현재 자네하고 같이 왔던 것 같아. 3명이.

이승철 아니, 나는 면회를 못 갔고.

임현재 처음에 한 3명이 왔어. 친구들이 3명 왔어.

이승철 나는 안 갔어.

임현재 당시에 한 사람은 창에 붙어 앉아 있고 두 친구는 뒤에 서서 있었어. 그렇게 면회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는 구치소에서 TV라든지 바깥소식을 철저하게 통제할 때니까 난 하나도 몰랐고.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신입을 통해서였는지 비슷한 이야기는 들었어요. 평화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분신자살을 했다고, 그래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데 굉장히 답답했죠. 그러다 나중에 친구들이 왔는데 그때는 이미 장례를 합의한 단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수호 알게 된 때가?

임현재 네. 사고가 나서 다 수습하고 장례 결정을 했다는 얘기를 듣죠. 그 뒤에는 양승조가 혼자서 몇 번 찾아왔던 것 같고. 나는 거기서 40일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10월 26일 그때 우리 마지막 시위가.

이승철 23일이야, 23일.

임현재 그날이었는지 그 뒷날이었는지 하여튼 우르르 몰려가면서 내가 맨 뒤에 따라가다가 부딪혔어. 나는 그때는 일단 죄인이라는 창피함. (웃음) 죄를 지었으니까 구속도 되고 징역을 살게 되는 거구나 생각을 했죠. 하여튼 마음이 여유롭거나 느긋한 게 아니라 상당히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그 사건을 접했는데.

그 후에 면회 왔을 때도 다 결정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사무실을 구해서 책상들도 들여놨으니까 내가 나가면 같이 일을 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결심을 했었죠. 그래서 구치소에서 나왔을 때는 계속 충격 받아 있었 다기보다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된 상태였고. 구치소에서 나온 뒤 노조 사무실에 갔을 때 낮에 어머니가 오셔서 저는 그때 처음 뵈었어요. 전에도 친구들끼리 어머니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를 처음 뵈었지만 우리에게 어머니 한 분이 더 생겼다고 생각하자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수호 예, 이제 자연스럽게 장례인데요. 주변에서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든 뭐라도 빨리 하라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어머니가 반대를 하시면서 결국 요구사항을 걸고 싸우다시피 하고. 서울 법대에서 대학생들이 학교장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그것도 안 되고. 교회로도 갔다가... 이렇게 복잡했는데 그 과정을 조금.

이승철 저는 장례식에 참여를 안 해서 과정은 잘 모르고. 그러니 15일 일요일에 병원에 갔다 온 이후는 모르겠어요. 종인이는 병원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건 종인이가 잘 알죠. 아까 영문이가 이야기하듯이 누구를 전혀 만날 수도 없고 정보도 모르는 상태로 2~3일이 흘렀죠. 그리고 18일에 장례를 치렀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날이 수요일이에요.

평화시장 쪽에 문을 닫네 마네, 셔터를 내렸다 올렸다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우리는 통일상가니까 별다른 일이 없었어. 나중에 이야기 들으니까 그날 시끄러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쪽의 요구가 그날 쉬어라고 했던 것 같아.

이수호 시장 다 문 닫고.

이승철 네. 그랬는데 문을 열고 있다 장례차가 그리 지나간 것 같아. 그래서 난.

김영문 그리 도착을 했지. 도착을 했어 평화시장에.

이승철 그런 걸 나는 전혀 모르고. 일하고 있는데.

김영문 나는 알아.

이승철 알 수가 없었지.

이수호 노제를 하려고.

김영문 평화시장에 도착을 했어요.

이승철 나는 그날 장례를 치른 것까지 아는데 나가 보지 않아서 전혀 모르겠고. 한 2~3일 사이인데 심정이 아주 복잡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태일이를 회장시켜서 그래서 죽었나. 그리고 우리가 실태조사 하면서 설문지 작성하면 일요일에 놀게 해준다고 했는데 애들이 나중에 항의하고 그랬거든. “오빠, 왜 안 놀아요?” 하면서. 그런 것들에 압박감을 느껴서 죽었나, 죽기까지 할 이유가 있나. 오만 생각이 들어 엄청 복잡한 심정.

그래도 저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일만 열심히 했었죠.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다음 날인지 종인이가 나한테 와서 노동조합을 만들기로 했다고. 저는 그때는 노동조합인지 노동청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그걸 만들어 놓으면 모든 예산도 노동청에서 다 나오는 걸로 (웃음) 그렇

게 알았어요.

이수호 그러니까 돌아가신 것 확인하고 장례까지.

최종인 그러니까 저는 성모병원에 가서 어머니하고 행동을 같이 했죠. 성모병원에 있었는데 찾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학생들은 직접 찾아오지 못하고 근처에서 봤죠. 그때 당시 장기표란 사람이 찾아왔는가 봐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못 만나고 밖에서 어머니를 만나 학생장으로 치르자고 제안을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학생장으로 치러라, 했어요.

그 당시 회사, 정보부, 관계기관이 어머니를 주목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각 대표들이 돈을 보따리로 싸들고 문상을 왔어. 그런데 어머니가 다 뿌리쳤어. 회사 사람들 못 오게 한다고 뿌리쳤던 것 같고.

당시에 수배자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 학생운동 수배자들이 오긴 왔는데 밖에서만 빙빙 돌고 어머니를 직접 만나지도 못했어. 그러니 어머니가 정보 관계자들을 피해서 몰래 다방으로 만나러 가고. 그래서 장기표 씨가 학생장으로 치르자고 할 때 어머니가 승낙을 했어요. 그 당시 신문에 학생장으로 치른다고 기사가 났어요.

그러자 정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정부랑 관계기관에서 회사를 더 쪼고, 노동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그때 노동청 차장이라는 사람이 인상이 참 좋았는데 그 사람하고 어머니가 직접 담판을 지었어요. 그 배후로 한국노총에서 조종을 했고, 이런 과정을 거쳐 요구사항 8개 항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8개 항을 회사에서 지키겠다고 하면 장례를 치르겠다,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회사 측에서는 급하니까 다 들어주겠다고 대답을 했죠. 요구사항 8개 항은 이쪽에서 제시를 했고, 하여간 어머니가 끝까지 버텨서 장례식 요구조건을 받아낸 거죠.

이수호 그런데 모두 어머님 처음 뵈을 때는 당시 40대 초반으로 인상이 소박하고.

최종인 어머니가 소박해 보여도 굉장히 강단이 센 사람이에요. 냉철하게 사리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참 대단하신 분이요. 그때도 느꼈고요. 물로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도 있겠습니까만 가족들은 어머니하고는.

이수호 안 맞았어요?

최종인 네. 다른 가족들은 가족장으로 치르자고 했고, 어머니는 가족들하고는 대화를 안 했어요. 그때 정부기관에서 가족들을 설득시키고 작은아버지도 거들었으니 어머니가 가족들과 대화를 안 할 수밖에요. 그래서 욕도 먹었죠.

그때 당시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재야의 인사들이 모여 요구사항을 만들어서 어머니한테 준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걸 보고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그 지역이 개선이 되고 태일이 뜻을 이루지 않겠냐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강력하게 요구사항을 관철시킨 다음에 장례를 치르겠다고 주장하고 버티셨던 것 같아요.

이수호 태일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님이 등장을 하시고. 그다음부터 모든 일이 어머님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어쨌든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라고 느껴지는데.

최종인 그날 이후로 장례식 때까지 노상 병원 주변에서 잤어요. 장례식 끝난 후부터 저는 어머니 집에서 기거를 하죠. 어머니는 아들 또

하나 생겼다는 마음으로 대했어요. 저나 승철이를 진짜 아들같이 생각했죠. 어머니가 깊은 정이 많다고 생각해요. 정도 많고 사리 판단이 확실하고 아주 강단 있는. 우리 친구들이 어머니를 따른 이유도 어머니가 강단이 있고 사리 판단이 옳은데 뒤로 물러설 때는 물러설 줄 알아요.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시죠. 물러설 때도 있는데 결정적일 때는 또 나서서 앞장서죠. 제가 느끼는 어머니의 개성이랄까, 모습입니다.

이수호 예. 이어서. 어머니께서 정부와 사측의 회유를 거절하고 전태일과 삼동회가 주장하고 싸웠던 요구사항, 그 부분이 더 확대되고 구체화되어서 8개 항으로 정리되고. 그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장례 못 치르겠다, 이렇게 버텼잖아요.

최종인 학생장으로 치른다 하니까 난리가 나서 그걸 들어준 거죠.

2. 범사회적 응답

이수호 전태일의 죽음은 이제 사회문제가 되죠. 신문이나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범사회적인 문제로 비화하게 된 거죠. 그 당시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웬만한 신문에는 다 기사들이 나고 또 노동실태 같은 내용들도 보도가 됐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전태일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 대학생들, 정치인들, 종교인 등 수많은 사람들이 나서게 되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좀 궁금한데요.

당시 언론의 논조, 평화시장 인근의 여론이나 분위기. 또는 빈소를 방문하거나 전태일의 장례절차를 돕기 위해 접촉한 사람들 중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혹은 후일 선생님들의 삶에 영향을

주거나 했던 분들이 계신지.

그리고 처음에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이었는데 점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느낌이나 생각은 어땠는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당시 (웃음) 우리 현재 씨는 구치소에 계셨는데, 그 안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을 텐데. 아까 말씀을 하셨고.

최종인 제가 좀 덧붙이면요. 태일이 장례식에 태삼이가 있었는데 태삼이가 상복을 안 입고 제가 입었어요.

이수호 태삼 씨는?

최종인 태삼 씨는 그때 당시 장례에 개입을 안 했어요. 저랑 전순덕이, 사촌동생 전갑수랑 해서 셋이 상복을 입고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런데 아까 장례식 당시 장례차가 평화시장 지나갔다고 했잖아요. 버스가 13대가 동원됐어요. 버스 13대 다 만석으로. 시끄러우니까 되도록 먼 데로 모란공원. 시끄럽다고, (웃음) 그래서 그 당시로 멀리 있는 모란공원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수호 마석까지.

최종인 마석까지. 지금은 일직선이지만 그때는 꼬불꼬불한 길 아닙니까. 꼬불꼬불하니까 말쑥도 못 부리고. 우리가 매년 추도식을 할 때면 추도식에 수백 명, 수천여 명이 오거든요. 각 단체에서 데모하러 나올까 봐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중간에 기동대 애들 서 있었고. 그런 진

통 속에서 7일 만에 장례식을 치릅니다.

저는 거기서 특별히 기억에 남은 사람이 한국노총의 김성길이라는 국제부 차장입니다. 김성길은 한양대학교 학생회장을 했었고, 종로5가가 집이에요. 그래서 평화시장 시스템을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도 노동 관련한 조직을 가져보고 싶은 야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추측인데 그때 평화시장 노동자가 2만 명이었으니 전태일 죽음을 계기로 이곳 평화시장을 조직해서 자기가 대표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 추측이긴 한데 틀림없이 맞을 거예요. 하여간 그 사람이 노조를 만들어야겠다는 특별한 각오를 해요.

이수호 그런 느낌을 받았고.

최종인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친구들을 모집하는 데 앞장섭니다.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설명을 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특별히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요. 김성길이 얼마나 야망이 컸냐면 노동조합 만들기 전에 브리핑을 했어요. 평화시장 양쪽 동이 엄청나게 긴데 그 옥상에다 복지시설센터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복지원을 들여오고, 오락시설을 만들고, 후생식당도 만들고. 그 플랜을 저한테 전부 설명을 했어요.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노동조합에서 이 복지센터를 만들 것이다, 노동조합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 이 지역에 혁신적인 개혁을 하겠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노조 지부장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 이야기라면 무조건 옳은 얘기라고 따랐죠. 어머니도 그 사람 약혼자와도 같이 만나고. 종로5가에 자기 어머니도 만나고. 이소선 어머니도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고, 나도 친구들도 동의하고. 그래서 우리가 김성길이 참 올바른 사람이니 그 뒤를 따르자

했죠. 정보기관엔 누구도 믿을 사람 없으니.

그 사람 깡다구가 있는 것이, 우리가 장례식을 치른 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예를 들어서 각 상가에 노조 사무실이 있어요. 동화시장에도 있고 평화시장에도 노조 사무실이 있어요. 장례식 치르고 나니까 사무실들을 다 막 아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장례식 치르고 나오자마자 문을 막은 가림막들을 다 뜯어버리고 부수고 들어가라고. 이런 깡다구를, 친구들 사이에 소문에 났어요. 이 사람 대단히 강단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를 믿게 되었는데, 그 김성길이란 사람이 가장 추억으로 남죠.

그다음은 당시 한국노총 사무총장이었던 윤영재 씨, 한국노총 위원장 최용수 씨. 이 두 사람이 노조 조직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또 부녀부장 하던 이필원 씨라고 이 사람도 적극적이었죠. 여기는 연소 근로자들이니까 도와야 된다고 하면서 노조를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을 같이했던 거죠.

이수호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그 당시 한국노총이 이른바 어용노조로 사용자들하고 밀접한 협조관계 속에서 오히려 연맹에 따라서는 노동자들을 상당히 힘들게 만드는 부분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노조 운동의 역사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전태일의 죽음과 청계천과 삼동, 평화시장을 중심으로 봉제노동자들의 실태를 보면서 여기에 노동조합이 필요하고 노동운동을 통해서 뭔가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국노총의 김성길 같은 분이 했고, 직접 평화시장에 와서 구체적으로 교육을 지도하는 등의 체계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거저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최종인 네. 그 사람은 야망을 가졌으니까.

이수호 승철 씨는 혹시 그분 기억나는지.

이승철 18일 장례를 치르고 19일에 종인이가 찾아와서 노동조합을 만들기로 했다. 그래서 사무실을 구했으니까 와봐라. 그런데 우리 사장이 종인이를 잘 알아. 종인이가 우리 사장과 근무를 하다 다른 데 갔었거든요. 가고 난 다음에 사장이 나한테 왜 종인 씨가 왔었냐고 물어. 그때 내가 처음으로 이야기했어요. 이번에 죽은 전태일이 나하고 친구였고 그런 활동하다 죽었다. 그런데 노동조합 만든다고 하니까 나를 필요로 해서 종인이가 오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는데 지금 기억으로 그날 바로 재단기를 딱 사왔어. 그전에는 다 손칼로 작업했는데 재단기를 사서 왔더라고.

이수호 시간을 절약시키기 위해서?

이승철 그리고 나한테 재단기를 가져다주면서 “아저씨, 빨리 해 놓고 가서 일 보세요” 그래. 작업장에 미싱이 6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재단기로 작업한 다음에 보조에게 어떻게 정리하라는 작업 지시를 해 놓고 나왔지. 그리고 노조 사무실을 갔죠. 그랬는데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사람들이 동화시장과 평화시장에 사무실을 내줬다가 장례를 치르는 동안 폐쇄를 시켜서 19일 저녁에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20일에 나보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을지로6가 무슨 여관이었어. 여관에 모여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의논을 한 결과 국회로. 국회의사당이 지금 시청 옆에 있었죠?

이수호 그렇죠.

이승철 그래서 국회로 가서 데모를 해야 한다고 열심히 의논을 했어요. 여담으로 하나 할게요. 그때 김○○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노조 사무실을 만든다고 하니깐 김○○이라는 애가 찾아왔는데 대학교 교복에 고대 배지를 딱 찢더라고요. 호랑이 그림. 그래서 난 고려대생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재단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때 개가 아주 엄청 설쳤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폐병에 걸렸는데 아마 그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친구가 국회까지 거의 갔을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나서 다시 사무실을 열어줬어요. 나는 재단을 해놓고 시간 내서 저녁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계속 올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이수호 장례를 치르는 8개 요구 가운데 사무실도 있었잖아요. 노조 사무실. 사무실 내줬는데 장례 치르고 나자 사무실 폐쇄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은.

최종인 폐쇄됐는데 김성길이 앞장서서 문을 뜯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기백이 대단하구나 다시 보게 되었고, 김성길이만 믿고 따르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에 국회에 가서 데모를 하잖아요. 김○○이 말고 김부기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김부기라는 사람이 자기가 입은 러닝 셔츠에다 요구조건을 써서 국회의사당에 가서 데모하겠다고.

이승철 여러 사람이 그렇게 했어. 그 속에다가.

이수호 속옷에다 글을 써서 겉옷으로 가렸다가 데모할 때 옷을 벗었다.

이승철 전태일을 살려내라.

최종인 그 과정에서 김동완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김동완 목사가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요. 창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당시 창동교회가 개척이었나 봐요. 태일이가 거기를 다녔어요. 김동완 목사가 학생 때 신학 대학을 다녔대요. 김동완 목사가 자기가 야학 할 때 태일이를 봤다, 그래서 나도 책임이 있으니까 너희들 나를 달리 보지 말고 너희를 도울 테니까 같이하자고. 도망 다니던 시절이에요. 그 당시 도망 다니던 학생들이 우리한테 많이 왔었어요.

이수호 김동완 목사님은 그 뒤에 KNCC.

임현재 총무를.

이수호 김동완 목사님은 총무도 하시고 기독교 입장에서든 상당히 진보적이시죠. 우리 전태일과 어머니, 전태일 운동하는 모든 분들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그 뒤로도 유지하고 계신데. 아까 한국노총의 여러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도와주기도 했는데. 처음에 왔던 학생 중에 장기표 씨라든지 또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최종인 저는 정치인들은 안 만나봤지만 정치인들도 국회에서 계속 이 문제를 다뤘죠.

임현재 아니 그 뒤에 김대중 후보 사무실에 우리가 갔지, 한 번.

이수호 갔었습니다. 71년도에 대통령 선거였기 때문에 김영삼 후보가.

임현재 아니 김대중.

이수호 처음에는 노동문제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다가 전태일 분
신항거 이후에 정책의 무게가 노동 쪽으로 크게 기울죠.

최종인 김대중 후보 사무실에 몇 사람이 갔었죠, 현재를 포함해
두세 사람이 갔어요. 그런데 김대중이 그때 40대 아니요. 처음 봤는데 너
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웃음) 김대중 씨 보고 와,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사람이 야당 후보가 이렇게 잘생겼나, 생각했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데요” 했어요. 그러니 자
기가 도울 게 뭐냐고, “우리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했죠. 자기
가 지방유세 다닐 때 문제제기를 계속하겠다, 대답하는데 말도 딱딱 끊어
서 명확하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인가 보구나, 엄청나게 잘생긴 지도자를
그때 한 번 봤어요. (웃음)

임현재 실은 그때 우리 친구들이 그 며칠 사이에 엄청나게 변화
를 해요.

이수호 그게 난 지금도 참 대단해. (웃음)

임현재 그전에는 정말 공장에 갇혀 있는 노동자였다가 그 사건
을 겪고 나서 상당히 투사화되는 거죠. 학생들이 뒷받침을 해주고, 언론들
의 관심도 쏠려 있고 그러다 보니 종교인들이 엄청 많이 찾아와서 지지하
고 제안도 주고. 그런 데다가 노동계 쪽 한국노총이나 연합노조 지도자들
은 아무래도 그 시기에 노동조합을 키우고 싶은 심정이겠지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측 입장을 대변해서 그 사람들의 코칭이 우리한테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김대중 후보 같은 경우도.

그리고 우리도 나름대로 결의를 다지는 얘기들을 가끔 하죠. 정 어려우
면 우리도 분신하겠다고. 그래서 12월 21일 중부경찰서에 갔을 때에도 만
약 일이 잘못되면 우리는 집단 분신한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
때 김대중 후보가 우리에게 했던 얘기 중에 생각나는 구절이, 내가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너무 깊게 개입하면 당신들한테 오히려 해롭다. 일이 오히
려 더터지니까 일단 기관하고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지원도 받으며 잘 하
라는 것과 그리고 죽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 (웃음) 죽는 것은 이제 그만하
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기억해요.

이수호 예. 어떻든 장례가 천신만고 끝에 이루어지잖아요. 학생장
으로 하려고 했다가 반대에 부딪치고. 오히려 그런 상황이 지렛대가 되어
서 8개 항을 만들게 되는.

최종인 학생들이 실제 하려고 했어요.

이수호 예, 그래서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최종인 각 대학에서 전부 문제를 제기했죠. 각 대학마다. 당시 그
렇게 알고 있어요.

이수호 뒤에 바로 이어서.

최종인 어머니가 강단이 대단한 양반이죠. 신문에 나온 주된 타
이틀이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것 아니요,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어머
니도 자식 죽음을 헛되이 앓겠다고 다짐을 한 거고. 저희 친구들도 내 친

구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최선의 길은 노동자를 만드는 길도 아니었고, 오직 노동조합이 잘되어서 평화시장의 근로조건이 개선이 되고 환경이 좋아지면 그게 태일이 정신 아닌가. 그래서 태일이 친구의 죽음을 헛되지 않겠다는 각오를 나름대로 하죠.

그런데 끝까지 운동을 못 한 죄인이고 이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습니다만. 당시 친구들의 각자 마음은,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태일이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각오로 이승철이니 신진철이니 삼동친목회 멤버들이 힘을 모았죠.

우리가 노동조합 활동할 때 노조에 돈 10원 한 장이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만 어머니 집에서 먹고 다녔어요. 장례식 치르고 노조 만들면서 사람들 조직하기 위해 저녁마다 어머니 집에서 2~30명씩 모여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것이 전순옥이 끓인 콩나물국인데, 콩나물국을 잘 끓였어요.

이수호 그랬어요? (웃음)

최종인 콩나물 사다가 고춧가루 좀 뿌리고 소금 넣어서 휘저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유일한 반찬입니다. 콩나물국에다 밥 한 그릇 딱 먹으면 그게 식사예요. 아침 식사. 콩나물국 잘 끓여서 그게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전순옥이가 친구들과 조합원들의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리고 노조 할 때 돈이 없는데 각계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서 라면을 많이 기증해 주었어요. 라면으로 점심하고 저녁 두 끼를 때웁니다. 큰 솥에다 라면 2~30개 넣고 장작불에 팔팔 끓여서 나눠 먹으면 그것이 식사였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괜찮지만 한 1년 동안 라면을 먹었더니 냄새가 나요, 라면 냄새. 그 정도로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태일이 정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 맞습니다. 참 의리 있고 대단한 친구들이죠.

이수호 장례, 그 상황만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당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으니까 결국 창현교회가 중심이 돼서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치르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기독교 청년 전태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혹시 영결식, 장례를 치르는 그날이나 전후 관련해서 말씀 좀. 우리 현재 씨는 구치소에 계셨고. (웃음) 영문 씨는 일하시느라고.

김영문 저는 그렇죠.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요. 아까 종인이 말대로 방송에서 학생장으로 한다는 등 관련 이야기는 계속 듣고는 있었죠. 그리고 그날 영결식이니까 평화시장에서 쉬라는 안내도 했어요. 그런데 업주들이 뭐 들습니까? 다 일을 시켰죠. 저는 그날 평화시장에 영구차가 도착했을 때 공장에서 나와서 지켜보았죠.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죠. 저는 그렇게 짬짬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는 뻘뻘이 있거나 전화가 있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직접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저는 그나마 동화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가까워서 점심시간에 한 번씩 올라가고 했던 거죠.

나는 이 친구, 최종인이라는 친구가 그때 정말 대단했구나 생각해요. 이승철, 임현재, 신진철이 그날 장례식에서 같이 찍은 사진에 보면 다 나오죠.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참 부족했구나. 나는 그 순간에 어떻게 공장에 있었을까. 사실은 죄책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 후 노조가 만들어지고 무슨 일 있을 때 친구들이 와서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면 무조건 참여했어요. 또 운영위원회에도 참여를 했고. 나는 어떻게 됐든 보답을 해야겠다, 함께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여태까지 왔습니다.

이수호 아니 뭐, (웃음)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예수도 12제자고 우리 삼동회도 회원이 12명이었다고 했죠. 예수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는 베드로도 예수가 어려움에 처해서 십자가형 당하고 할 때, 난 그

사람 모릅니다 하고 도망갔어요. 그게 인간이라고 (웃음) 너무 자꾸 자책하지 마세요.

김영문 운구차까지 와서 이야기하고 그거 다 보고서 다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니까요. 그렇다고 회피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 그 상황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달라고 하면 하죠. 아마 1월인가, 신동아에서 찾아왔더라고요.

이수호 그다음 해 1월?

김영문 전순옥이가 같이 왔어요. 동화시장 근처에 작은 빵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신동아, 아마 기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황 설명을 했죠. 지금도 어떠한 곳이라도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대답하죠. 그 친구의 죽음이 정말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대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이수호 보면 학생장으로 치르려고 했다 반대해서 기독교장으로 가고, 그 당시에 노동청하고 협상해서 관철시킨 건데. 혹시 그 과정 속에 승철 씨는 장례 당일 기억나시는 건.

이승철 저는 그 당시 기억은 없어요. 생각만 복잡했고, 일을 그만두고 장례식을 돕고 있는 종인에게 합류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없었고.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19일부터 제가 노동조합을 만드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죠.

20일에 회의를 하고 다시 교실을 찾으면서 점심때나 저녁에 갔을 때 누가 자주 있었냐면요. 김성길 씨도 있었지만 양태중, 황종욱이 등이에요. 우

리가 신문에 보도되고 나서 자기들이 노동조합 만들 테니까 우리더러 협조하라고 했던 시장의 선배들이라고나 할까. 우리는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부장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저는 노동조합과 노동청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노동조합 만들면 예산이든 뭐든 다 노동청에서 지원된다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인지라. 하여튼 그 사람들이 그거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종인이 뺑에 김성길 씨가 넘어간 거야. (웃음) 솔직히 조직이 크다고 하니까 덤빈 거지, 그러지 않았다면 오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 사촌형이 보안사에 있었고 한국노총 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촌동생을 국제부 차장으로 집어넣었던 거고.

그 이후 공부를 하면서 보니 한국노총이라는 게 전평, 일제강점기에 노동운동한 분들 때려잡기 위해서 만든, 소위 김두한 깡패조직들 같은 사람들이지. 그들이 일반 노동자들을 위한 건 아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71년도에 보면 최용수 씨가 전국위 국회의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용이었던 거예요. 청계노조와 전태일을 그들은 이용했을 뿐이지 그들이 꼭 전태일 뜻을 살리겠다는 의지는 없었던 거죠.

이수호 한국노총이 조직적으로 지원하거나 그러진 않았다, 김성길 씨도.

최종인 조직적으로 지원했어요.

이수호 어. 그랬어요?

최종인 조직적으로 지원했죠, 각 노총의 모든 부서가 결성되기까

지 조직적으로 계속 지원을 했어요. 모든 진행 자체를.

이수호 예,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고요. 장례 당일 분위기라든지. 최종적으로 병원에서 출발하여 평화시장에서 노제도 지내고, 쪽.

이승철 노제를 지냈어? 평화시장에서?

이수호 그냥 다녀간 것 같아.

김영문 거쳐서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승철 그냥 차가 지나갔죠. 그냥.

김영문 아니. 근데 거기 한참을 있었지. 그러니까.

이승철 있었어?

김영문 그럼.

이승철 그럼 노제를 했나 보네?

김영문 한참을 있었어. 노제는 내가 기억이 얼른 안 나는데.

임현재 지금처럼 그런 절차를 우리가 몰라서.

최종인 장례식 때는 평화시장 근로자들은 일체 쉬기로 사측하고

약속을 했죠.

김영문 그러니까 그래서 들렀다 갔다니까.

최종인 장례식 날은 다 쉬자고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시장 자체가 난리가 난 거죠. 태일이 장례식 날이니 근로자들은 다 같이 쉬자고 했는데 사용주들이 암암리에 일을 시켰던 거예요. 쉬는 공장도 있었겠지만요. 그런데 암암리에 일을 하면서도 근로자들은 슬퍼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장례식 때 교회에서도 많이 왔어요.

이수호 창현교회?

최종인 창현교회뿐 아니라 도시산업선교회라고 있는데 여자 목사님이었어요.

이수호 조화순.

최종인 조화순 목사. 그 후에 도시산업선교회에서 노조에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도시산업선교회, 그다음이 조수형 목사라고.

이수호 조승혁.

최종인 조승혁. 네. 도시산업선교회더라고요.

이수호 네. 맞습니다.

최종인 그 목사가 평화시장에 특별히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조승혁 목사 밑에 이미경 씨라고 국회의원 했던 조영래 처제가 지원하고 있었어요. 이미경 씨가 조승혁 목사 심부름도 하고, 우리 노조의 부녀부장과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지원을 했었고, 당시 종교단체로부터 많은 지지와 지원을 받았죠. 노조가 설립되고 난 뒤에는 말할 수 없고요.

저는 제일 기억나는 것이, 가톨릭신학대학이라고 있어요. 가톨릭신학대학 4학년생들 4명이 상주를 하다시피 했죠. 그 사람들은 4학년이 되면 실습을 나가야 된대요. 그런 그들이 실습을 평화시장에서 했어요. 평화시장으로 실태조사 나가면 같이 조사하러 다니면서 여러 활동을 했죠. 조합원들만 활동을 한 게 아녜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활동하면서 체계적으로 지도도 해주고, 체계적으로 코치를 받다 보니 교육이 필요했어요. 기억에 남은 게 이대. 그 무슨 교실?

이승철 그거는 지금 주제하고 조금 벗어나고.

이수호 뒤에 일인데.

이승철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더 오해하고 있는 부분. 그때는 몰랐지만 그다음에 들은 이야기인데 창현교회에서요, 목사가 성경에 자살하는 사람은 장례를 못 치르게 돼 있다고 했대요. 어머니가 그 말에 엄청 반대했어. 그래서 어머니가 그 이후부터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니 창현교회가 대대적으로 개입했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선 아니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장례 날에도 어머니하고 친했던 분들만 왔을 뿐이지 창현교회 자체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수호 자살은 기독교 교리에 어긋난다고?

이승철 네, 교리에 어긋난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 이후부터 종교에 회의적인 생각을 하시고 교회를 안 다니신 거죠. 그러다가 71년도 유신체제로 들어서면서 너무 힘드시니까 정의여중 앞에 있던 교회에 나하고 한 1년쯤 같이 다녔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자꾸 뒤로 넘어가서 하지 말고. 그래서 장례는 그렇게 치렀으면. 이제 장례까지는 끝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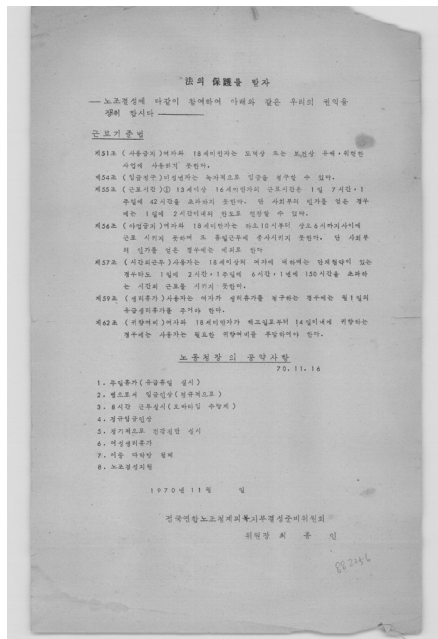
이수호 네. 그래서 어떻게 그쪽에서 일부러 멀리 (웃음) 마석까지, 아예 멀리 보내버린 거네.

최종인 마석은 그 당시 굉장히 멀었어요. 마석 가려면 두 시간 걸렸거든요.

이수호 그렇게 장례가 치러지고요. 장례가 치러지자마자 바로 불길이 일어나고. 아까 종인 씨는 그때부터 어머님 집에서 기거를 하면서 친구들을 규합하고,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잖아요.

이 이야기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하죠. 지금은 장례식까지만 진행을 하고. 오늘도 내용이 너무 무겁고 힘들지만 조금 쉬었다가 청계피복노조 결성하는 그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좀 쉽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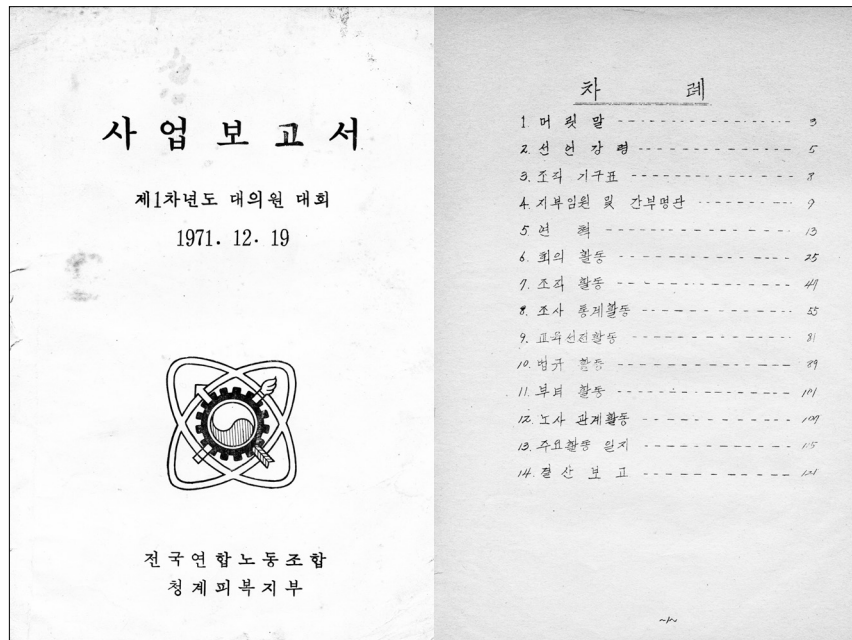
(중간 휴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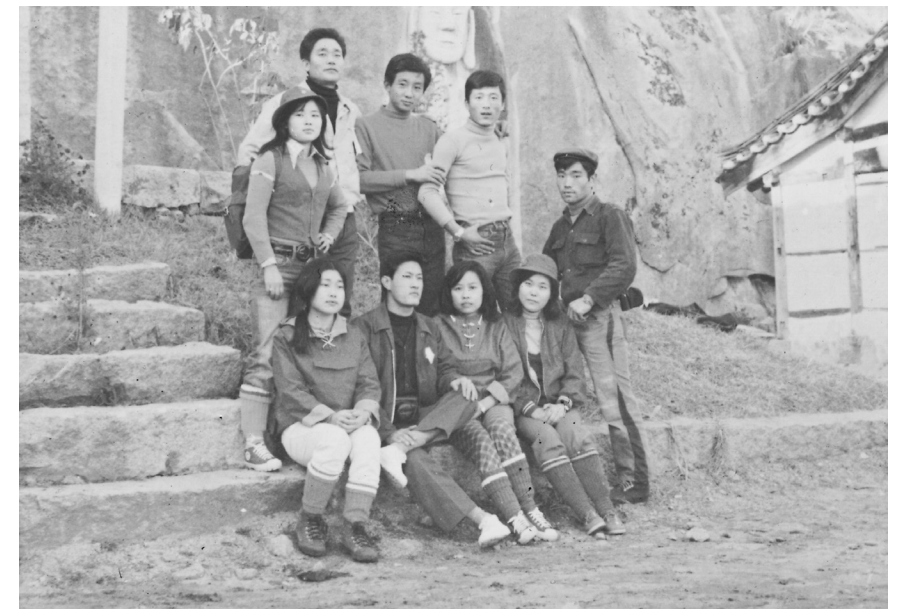
청계피복노동조합 결성 준비위원회 요구사항 8가지, 1970년 11월, 전태일재단.



임현재, 정인숙, 도요한, 이승철(왼쪽부터) 청계피복지부 사무실 현관 앞에서 기념사진, 1971년, 이승철.



청계피복노조 제1차 대의원대회 사업보고서, 1971년, 전태일기념관.



청계피복노조 등산대회에서 임현재(오른쪽 첫 번째), 최종인(오른쪽 세 번째), 이승철(앞은 열 왼쪽 두 번째), 전태일기념관(유정숙 기증).

3. 청계피복노조 결성

이수호 하여간 어렵게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참, 치른다는 표현이 그렇기는 합니다. 그 당시도 그렇지만 장례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와 울림이 있죠.

요즘도 11월 13일이 되면 우리 노동자들은 다, 특히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자들은 전부 전태일을 생각하죠. 민주노총이 한 해에 행사나 집회도 많이 하지만 11월 13일 전후해서 하는 전태일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1년 중에 제일 큰 행사로 자리를 잡았죠. 우리들, 여기 계신 친구분들이 11월 13일이면 앞장서서 묘소에 모여 그때를 생각하고, 전태일을 그리워하고 노동자로서 우리 삶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면서 장례를 치러야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 어머니와 삼동회 회원들은 노동청장과 약속대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평화시장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사무실도 주기로 다 약속을 했으니까. 하지만 사측의 비협조로 내주기로 약속했던 노조 사무실의 문은 닫혀 있었죠.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무실의 열쇠를 받지만 다음 날도 여전히 문이 닫혀 있자 어머니와 삼동회 회원들은 국회를 찾아가서 시위를 하고 이로 인해 간신히 사무실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후 노조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지만 외부에서 이권을 노리고 온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 한 번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11월 27일 결성식을 통해서 한국 최초의 청계피복노조를, 그 당시 정식 명칭은 한국노총 연합노조 청계피복노동조합.

김영문 지부.

이수호 이렇게 됐죠? 하여간 결성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들을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실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구체적인 상황들, 노동조합 결성 과정에 내부에서 참여한 사람들과 외부에서 개입한 사람들 중에 중요한 인물들은 누구였고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까도 얘기는 나오긴 했습니다. 노조에 늦게 합류했다 하더라도 노조 내부에서 인상적인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런 이야기.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했을 때 정부나 사측에서 어떤 태도로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방해 같은 건 없었는지.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을 때 심정은 어땠는지. 그리고 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갑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뒤에 일어난 일이라도 꼭 한 번 짚어보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서기와 총무를 했던 사람이 우리 승철 씨죠. 그 당시의 중요한 기록들을 보관했다가 우리 전태일기념관 개관할 때 귀한 자료를 내놓기도 했는데. 승철 씨부터 좀 이야기를.

이승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19일에 종언이가 점심시간을 통해서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종언이하고 전혀 연락이 안 됐고, 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고. 아까 방송에서 들었다는데 나는 방송도 못 들었거든요. 사실 우리 공장에 그것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겁먹은 상태라고나 할까, 좀 혼란스러운 마음.

장례식 치르고 그다음 날 19일에 종언이가 와서 장례식 치렀다고 이야기하고, 노동조합을 만드는데 나보고 좀 적극적으로 같이하자고 했죠. 종언이가 가고 나서 우리 사장님이 최종인 씨가 왜 왔냐고 그래서 그제야 비로소 이야기를 했어요. 전태일이 내 친구였고, 우리가 종언이하고 같이 모임을 하다가 태일이 죽었는데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나더러 좀 도와라

한다고 했어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가더라고. 그리고 몇 시간 만에 재단기를 사들고 와서는 “아저씨!” 그러면서 “아저씨가 그만두면 우리 공장에 지장이 많으니까.”

이수호 사장님이 그렇게 했다고?

이승철 예, 예.

이수호 그런데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아저씨 그랬어? 그때 호칭이?

이승철 아줌마는 나보고 아저씨라고 그러고 사장은 재단사라고 그러고. 호칭을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재단기를 사와서는 빨리 잘라놓고 가서 일 보라고 하니 그다음 날부터 점심시간에도 가고 저녁에도 좀 일찍 마무리하고 가고.

23일이었는데 점심시간에 사무실을 들렀어요. 어머니가 계셔서 인사를 드리고 난 후에 종업원이 자기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나갔어. “야, 승철아. 지금 양태종이, 황종옥, 저 사람들이 지부장을 하려고 하는데 김성길을 시켜야겠다. 그 사람이 그래도 욕심도 없고” 난 김성길을 잘 몰랐죠. 그러면서 나보고 먼저 얘기를 하라고 해요.

그런 말을 주고받고 들어가서 회의를 했어요. 전체회의를 하는데 지부장을 누가 했으면 좋겠냐고, 사람들이 조용히 있어. 그래서 내가 발언을 했지. 전태일은 영리를 목적으로 죽지 않았으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지부장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김성길이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

이수호 짠 대로? (웃음)

이승철 아니 (웃음) 짜진 않았죠. 그리고 종업원이 벌떡 일어나서 손바닥으로 “맞아, 승철이 말대로 우리는 김성길을 지부장으로 뽑는다”. (웃음) 그리고 탕탕 해버렸어. 그러니까 황종옥이하고 양태종이 이 사람들이 얼굴이 벌게져서 나갔어요. 그렇게 김성길을 지부장으로 하기로 했고.

나중에 들은 이야긴데, 어머니가 그때 승철이의 태일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죽지 않았다 하는 얘기가 가슴에 와 닿아서 승철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김성길이기도 쉽게 말하면 저놈이 성격도 있고 괜찮다 생각했나 봐. 그래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때, 그러니까 27일이었잖아요. 그래서인지 전날 26일에 나를 보자고 하더라고. 종업원은 없었지. 김성길이 노조 간부를 꾸리는데 각 자리에 누구를 앉히면 좋겠냐고 의견을 묻더라고. 예를 들어 부지부장에 한 사람 더 추천을 하라고, (웃음) 내가 임현재 부지부장. (웃음) 그래서 임현재가 부지부장 하고.

이수호 그때는 구치소에 있었는데?

이승철 구치소에 있었죠. 나도 역할을 맡아야 된대. 그래서 뭐를 해야 하나 고민하는데 운영위원을 하라고. 그래서 내가 운영위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노조 준비위원회 때 내가 동원간사인지 조직간사인지를 했어. 그리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난 후에 나는 근무를 안 하는데도 조직부장으로 앉혔어.

이수호 상근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승철 안 해도 그렇게 했어. 노조 결성하는 날 한국노총에 가는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대의원대회를 할 수 없지. 조합원이 없는데, 할 수가 없지. 사람을 좀 더 많이 데려가야 했어. 그래서 우리 공장 사장님한테 오늘 노동조합을 결성하는데 같이 일하는 여기 노동자들을 데리고 가면 안 되겠느냐고 했더니, 몇 시냐고 해서 대략 6시쯤이라고 했던 것 같아. 그러면 빨리 마무리 해놓고 데리고 가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공장 사람들 13명을 다 데리고 갔어요. 지금도 사업보고 명단에 보면 다 들어가 있어.

이수호 사장님 참 좋은 분이네.

임현재 그 사람이 교육자 출신이라고 안 그랬냐?

이승철 아냐. 그 사람은 나중에 망해서 망일했어, 그 양반 아니고. 내가 그 양반 처남집에 있을 때 그러니까 겨울에 문어 모자다리를 만들고, 구정을 쇠고 나서는 아이들 블라우스하고 남방을 만들었어. 방학 때까지 했는데, 그 부인이 선생이었더라고. 어휴. 집 안이 난리지. 집에서 재단을 했으니까. 그 선생이 그만둔다 어쩐다 하니까, 그때 내가 마지막에 있던 공장 사장이 혼자 일하고 있었는데 나보고 오라고 했어. 그러니까 자기 매제지. 매제보고 임금을 얼마 줬는지 물었는데 3만 원 줬다고 하면서 두 사람이 아주 입이 닳도록 내 칭찬을 한 거야. 그리고 3만 5천 원을 줄 테니까 와서 일을 해달래, 자기네는 재단을 많이 할 건 없지만 착하다니까 단도리를 잘 해달라. 그래서 내가 그리로 갔던 거거든요.

자꾸 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장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재단기를 사다 주고 했겠는가 그 생각을 해.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세요 그랬겠지.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건 그거야. 재단기를 사줬다는 거. 그래서 적극적으로 쫓아다

닐 수 있었고, 노동조합 결성식에 노동자들을 모두 데리고 갈 수 있었어.

그날 양태중 그쪽 패들이 자기네 애들 데려와서 싸움이 나고 난리 났어. 그때 유도 5단인 한국노총 조직부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섰지. 진철이도 나서고, 우리는 힘은 없어도 소리는 잘 지르잖아. 겨우 막아내고 빠르게 탕탕탕 쳐서 노조를 결성하게 됐지. 끝나고 을지로2가에 큰 식당에 갔어. 삼겹살에다 소주를 먹는데 나는 그때 소주 두 잔만 먹으면 토하던 시기야. 그런데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 결성대회를 너무 잘해서 말이지.

나중에 어머니가 내 말에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 내가 인사불성 됐는데 친구들 둘이 양쪽에서 나를 부축하고 서교동으로 데리고 가는 중에, 아주 꼭지가 돌아서 정신이 없는데도 어머니를 챙겼다는 거야. 니들이 어머니 좀 잘 모시고 가라고 했었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나지. 하여튼 3일 동안 엄청나게 몸살이 났어요.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그다음부터 열심히 활동을 했죠. 하여튼 노동조합 결성하고 난 이후 12월 1일인지 2일인지 모르겠지만, 토요일이었는데 창동 어머니 집을 갔어요. 나는 처음 간 건데 하꼬방 판자촌에다 물 내려가는 도랑에 관 짝으로 다리를 놓았어. 그 처지를 본 내 느낌은 지지리 못살면서 무슨 남을 위해서 일을 하나, 자기 돈 벌어서 집에 보태주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승철아 이거 한 번 봐라, 편지야. 반송이 온 거더라고. 태일이 바로 자기 눈을 하나 기증할 테니까 돈을.

이수호 네. 중앙일보에 보낸 거.

이승철 그거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세상에 어떻게 눈을 빼주고 돈을 받아서 사업하고 그걸 돌려준다고 하냐고. 다 보고 나니 또 다른 일기를 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태일이는 우리가 단순히 회장을 시켜서 죽은 게 아니고 자기의 굶은 각오가 있어서 죽은 거였어. 그 이후

에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태일이는 자기가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일기를 통해서.

그 뒤로 장 형, 장기표 씨도 만나고 하여튼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변하죠. 한두 달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죠. 2월 초순에 구정이었는지 그때 제가 일을 그만두고 노조 사무실에 갔어요. 그러니까 12월까지의 나처럼 친구들도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덤뻐했는데, 아까 종인이 이야기했듯이 라면 8개로 20명이 먹고, 그때는 결혼식에 가면 찹쌀떡을 답례품으로 줘요. 깨끗이 차려입고 읍지에식장에 가서 그거 얻어다가 나눠도 먹고. 월급도 안 나오지, 먹는 것도 시원치 않지. 그래서 12월 중순쯤 되니까 다 슬슬 그만두게 돼요.

그래서 임현재도 나오고, 신진철이, 양승조 등 몇 사람만 남게 되니까 종인이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나한테 같이하면 안 되겠냐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만두고 노조 사무실로 합류하게 되죠.

이수호 어떻게 장례 끝나고 종인 씨는 그러면 어머니 집에 언제부터.

최종인 장례 끝나고 바로 그때부터 어머니 집에 있었죠. 어머니하고 행동을 같이했으니까. 평화시장 올 때 어머니하고 같이 나오고, 퇴근할 때도 같이 다니고, 어머니와 행동을 같이하면서 모시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승철이가 정확히 자기가 노조에 언제쯤 나왔다는 것까지 기억하잖아요. 승철이는 매사가 착실해. 조금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아. 정확하고.

이수호 본인이 못 하니까. (웃음)

최종인 본인이 못 하니까. 정확하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기 일

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자기 사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이수호 그건 다.

최종인 네. 그건 다 인정.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니까 사용주가 노조 결성하는데 “가봐라” 했겠죠. 어떤 사용주가 가라고 하겠어요. (웃음)

이수호 재단기도 사주고. (웃음)

최종인 저는 노조 준비하면서 제일 힘이 된 것이 승철이인데. 김성길이라고 노조 결성에 대한 준비를 했죠. 양태종이라고 그 아까.

이승철 황종욱이, 세 사람이 있었어.

최종인 두 사람이지?

이승철 세 사람이야.

최종인 그 세 사람은 시장의 원로 선배들이예요. 그 사람들이 사용주 편에 서고.

이승철 사장 동생도 있고.

최종인 사장 동생이고 공장장이야. 그러니 그 사람들, 태일이가

그전에 만난 사람들이예요. 그 사람들이 태일이한테 노조를 같이하자고 해서 태일은 이미 거부를 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손잡을 리가 있습니까? 없지. 사용주고 공장장이니까.

나는 김성길이라고 아삼룩 해서 한국노총에서 다 만들어주는 줄 알았지. 11월 27일 대의원대회를 하잖아요. 김성길이 주도하는데, 준비위원장 아니요. 김성길이 나보고 준비위원장을 하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땡땡땡 친 거죠. 준비위원장이 의장이 되잖아요. 저는 전혀 모르니까 각본대로. 딱 써준 대로. 난 옛날부터 승철이를 알아왔지만 승철이가 확실한 사람이니까 승철이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 내 친구로서 전태일이라고 같이 함께할 사람은 이 사람이다. 그래서 대충 승철이를 찍었죠.

이수호 그전부터도 잘 알고.

최종인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알았으니. 대의원대회 하는데 56명이 모였어요. 승철이가 공장을 털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온지는 몰랐죠. (웃음) 56명이 대의원인데 공장을 털어서 13명이 들어왔으니 42명. 여기 친구들이 대의원으로 나간 거죠. 양태종이 세력도 있고 사용주 세력도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찍 소리도 못 했어요. 일사천리로 탕탕 가결시켜버렸죠.

이승철 처음에는 소란스러웠어요.

최종인 난리가 났었죠.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진행했는데 김성길이 지부장 시키고. 그때는 아무 때나 오고, 사무실에서 근무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노동조합법을 알고 보니까 시장에서 근무를, (웃음) 소속돼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 그때는 한국노총에서 파견 나와 지부장을

하는가 보다 생각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밀었던 거고. 나는 김성길과 아삼룩이었고, 어머니하고도 통했고. 어머니가 오케이 했으니까 저는 무조건 하는 거고.

그래서 저를 상임 부지부장으로 하고, 임현재는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도 임현재를 끼워야 우리가 일이 되니까. 임현재가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웃음) 말도 잘하고 인간 스피커예요. 잘 맞았죠. 노조가 처음 결성된 과정이 이렇습니다.

이승철 이걸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양승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양승조가 평화시장에서 꽤 오랫동안 노조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양승조가 여기 평화시장 출신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공장의 재단보조라고 내가 재직증명서를 떼워서 노동조합에 근무를 하게 됐죠.

최종인 양승조는 전 모르는 사람이었고.

이수호 예, 어떻게 장례를 치르고 그다음 날부터 종인 씨는 바로 어머님 모시고. 어머님은 앞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니까. 그것도 참 정말 대단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그 초라한 하꼬방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했는데. 아까 어머님이 상당히 강단 있고 판단력도 정확하고 추진력도 있다고 했는데, 그전까지는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변해가는 과정이 보기에 어땠으며 어머님이 어느 정도 같이 하셨고, 어머니의 영향력은 진짜 어떠셨는지?

최종인 어머니의 사리 판단은 일단 노조를 만들어서 이 지역을 개선시켜야 태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확고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죠. 사리

에 밝은 분이셔서 노조를 이끌 사람들은 전태일이 친구들이어야 하고 외부에서 개입하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하셨죠. 단지 초창기에는 잘 모르니까 어머니도 김성길이라고만 손을 잡고 지도를 해주십사 부탁을 하신 거죠.

어머니가 강단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보기에는 야리야리하잖아요. 겉 모습은 야리야리한테 굉장히 생각을 깊게 하시는 사람이에요. 생각을 많이 하시고, 정도 많아요. 그 당시 제가 인상도 좋으니까 그 집에서 살 수 있었고 (웃음) 친아들같이 대했죠. 저 또한 친어머니처럼 모셨지. 저 젊었을 때는 인상이 괜찮았어요.

이승철 그때나 지금이나 미남이야. (웃음)

최종인 아니, 인상이 괜찮았다고. (웃음) 그러니까 어머니도 자기 아들같이 생각을 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니까 조금도 거부감 없었죠. 거부감이 있었으면 저도 못 있었겠지. 갈 데도 없었지만, 어머니랑 같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굳혔으니까.

이수호 라면 먹어가면서.

최종인 네. 진짜 어머니마냥 모셨죠. 노조 사무실이 만들어지자 어머니가 오시는데 사용주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관계기관에서도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딱 감싸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마음에 위로를 받으시고 노상 아들이 죽은 곳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있었지. 친구들이 눈치 주고 그랬으면 절대 못 옵니다.

임현재 김성길이라는 사람이 노동조합, 노동운동에도 경험이 있는 거잖아. 김성길이 한국노총 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학생운동도 했

던 사람이었으니 노동조합설립이라든지 그런 운동에 대한 포부가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가까운 평화시장을 눈여겨보았겠죠. 평화시장 노동자 수가 2만 7천 명에 이 조직을 동원하면 자기 출세가 가능하다. 이곳을 노동운동의 발판으로 삼으면 힘을 키울 수 있겠다 판단이 섰던 거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한국노총이나 연합노조 등을 통해서 정부를 설득하게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친구들을 설득해서 어머니를 자기편으로 만든 거였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노동조합 결성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거고. 양념으로 반대쪽인 황종옥 세력까지 있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신도 났겠죠.

그 이후 김성길은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약간 변해요. 관에서도 불만이죠. 늘 하는 말이 어머니는 더 이상 개입하지 말아달라는 건데, 그런 압력이 들어와요. 김성길 씨도 어머니한테 맨날 물어보고 승낙을 받아서 활동하기보다는 자기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사무실에 어머니 자리가 없었어요. 오셔도 한쪽 의자에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장사하러 나가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김성길이기도 사리 판단이 빠른 사람이죠. 상황을 보아하니 관이 계속 도와줄 줄 알았는데 가능성이 적고, 오히려 빨리 수습하라는 얘기나 들었을 거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가버리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리고 나서 최종인이가 직무대행을 하다 우리가 12월 21일 집단 분신 투쟁을 할 때 그때 중부경찰서로 연행이 되거든요. 연행됐을 때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열려요. 사용주 측으로 평화시장 상가 대표들, 관에서는 노동청, 그리고 노동계에서 최일호 조사통계부장이 연합노조를 대표하고. 그렇게 모여 대책회의를 하는데 조정은 노동청을 통해서 중앙정보부가 하는 거고.

그 대책회의 자리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까 얘기를 하는데 최일

호 부장이 여기는 노사 대화창구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노사협의회를 통한 대화창구를 만들어서 순리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노사협의회 결성안이 채택이 돼요.

그리고 우리한테 회의 결정 사항을 얘기하면서 이후에 사용주 측하고 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을 만들어가라고 하죠. 그래서 농성을 풀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최일호 씨의 코치를 좀 받았죠. 김성길이는 떠나버리고 없고.

이승철 아냐. 그때 김성길이는 있었어.

임현재 아냐.

이승철 아니 있었어. 내가 이야기할게. 우리가 농성을 할 때 김성길 씨랑 같이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김성길이를 오해하게 돼요. 우리가 농성을 하고 있는데 김성길이가 전화를 했는지, 손뼉을 쳤는지 정확하지 않는데 그런 순간에 경찰들이 물대포를 쏘면서 딱 맞춰서 들어왔거든요. 그때 우리와 어머니의 생각에 김성길이가 경찰에게 어떤 순간 진입하라고 신호를 줘서 경찰들이 쳐들어 온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노사협의회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최일호 씨가 단체 규정을 다 만들어서 1월 9일에 노사협의회가 정식 체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신문 기사에 언급되는 횟수도 적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김성길 씨가 하는 말이, 기사가 줄어들면 우리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친구들이 노동청장실에 가서 다시 한 번 농성을 해라. 그래야 다시 사회적 이슈가 돼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게 결정적으로 김성길이라고 헤어지게 된 이유야. 우

리 쪽에서 어머니가 친구들이 농성하다가 다 잡혀가버리면 노동조합 활동은 누가 하냐고, 그래서 우리는 못 하겠다고 했지. 김성길이 말이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종인이가 뺄 친 얘기는 말 그대로 뺄이었고, 몇백 명도 없잖아. 쉼 남짓 동원하는 데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떠나려 할 때 그냥 나간 건 아녜요. 서울운수노조 지부장 구건회를 우리한테 소개를 해요. 맨 처음 신기호 씨한테 소개를 했어. 신기호 씨가 노조 초창기에는 총무부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양반한테 이야기를 한 거야. 우리 친구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시장에 오래 있었던 신기호 씨가 믿음직했는지 구건회와 사무장 김윤근을 소개해 주고 그리고 사표를 쓰죠. 우리가 그 공백 기간에 잠깐 직무대행을 하고 난 후에 구건회가 지부장이 되고 4월에 김윤근이가 사무장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아까 종인이가 옥상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동화시장하고 평화시장 사이에 몇백 평 되는 넓은 공간이 있었어요. 1층은 사용하고 있고 위층은 공간이 비어 있어. 김성길이는 맨날 그곳의 비어 있는 층들을 보며 노동청에 말해서 2층은 뭘 하고, 3층은 뭘 하고, 줄곧 그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김성길이라는 사람은 조직을 동원해서 운동을 한다기보다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서 복지사업 같은 걸 하고 싶었던 거지. 사실 운동조직을 만들어서 근로환경이나 조건을 개선하는 노조 활동에 집중했던 건 아니었던 거야.

최종인 김성길이가 결정적으로 우리들을 깨우치게 한 것은 맞죠. 어머니도 김성길이 얘기를 절대적으로 들었고. 그런데 승철이 얘기하듯이 중요한 건 김성길이가 떠나게 된 동기가 여기는 정부에서 지원을 별로 안 해준다. 아무리 떠들어봤자 힘들겠다고 판단이 들었는지 좀 전 얘기대로 노동청에 가서 분신자살 소동을 벌이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축이 빨랐어요.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 하

려고 했어요. 저녁에 준비를 다 했죠. 기왕에 이렇게 된 거 그냥 우리 노동청장 붙잡고 같이 분신해버리자, 같이 분신하면 문제가 더 커질 거 아니냐. 다들 이런 각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난 어머니가 축이 빠르고 판단력도 빠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희들 절대로 가면 안 된다. 너희들 들어가버리면 자기 혼자 남는데 누구하고 일하냐. 거기 들어가면 다 구속될 거다. 집단 분신자살이라고. 우리는 노동청장실 사전 점검도 했더니깐요. 점검을 하면서 입구도 봐두고 어떻게 할지도 정했고. 그런데 어머니가 노!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어머니의 생각이 참 옳다, 판단이 빠르시다. 그때 들어가버렸으면 우리는 영원히 사라졌겠죠. 어머니의 축과 판단력이 정확하다는 걸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수호 그래요. 어떻든 장례 이후에 8개 항목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사무실도 다시 열고, 27일에는 어떻든 깃발을 올리고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죠. 우리 영문 씨는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군대 가고, 그리고 제대하고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때의 느낌이나 생각은?

김영문 군대를 갔다 왔을 때는 노조가 어느 정도 조직을 갖추어서 돌아가고 있었죠. 신진철이 그 당시 나하고 제일 잘 알았던 거예요. 신진철이 찾아와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난 후 운영위원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한 거죠. 그리고 항시 이 친구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군대 문제도 있었지만 같이 참여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부족했다는 거죠.

사실 오늘 이렇게 같이 만나기가 힘이 들었잖아요. 어느 모임에 가서 이 친구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듣기만 했었죠. 저는 진짜 이 모임을 통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4. 노동운동의 새로운 시작

이수호 하여간 객관적으로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실제 그 뒤로 70년대 노동운동의 새로운 시작이 쏘트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변화합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71년도에 김대중 씨가 후보로 나오면서 노동에 관한 공약이 확 바뀌고 비중도 엄청 높았어요.

이승철 다섯 번째로 하죠. 김대중 씨가.

이수호 예,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박정희 후보도 노동 공약을 맨 앞으로 올리거나 새로운 내용을 넣기도 하고. 그러면서 관심이 많아지고 여기저기 노동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첫걸음을 떼는 계기가 바로 전태일의 분신헌거에서 시작된다. 대체로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초창기 분위기를 청계피복노조라는 조직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겠고.

어떻든 청계피복노조가 그 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80년대로 넘어가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하고. 그 초창기에 있었던 일. 아까 새로운 정보도 있고 한데, 이를 중심으로 하고 싶은 얘기라든지 한 분씩 말씀해 주시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으면 싶은데.

임현재 노동조합이 결성됐을 때 우선적으로 제일 큰 문제가 먹고 사는 거였잖아요.

이수호 본인들.

임현재 그동안은 어찌 되었든 월급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끊어진 상황에서 월급 나올 때도 없고, 사무실 출근해도 난로조차도 못 피워서 폐목들 주워다 연기를 마셔가며 추위를 견뎠고, 그리고 점심을 못 먹으니까 기증받은 라면을 꿀꿀이죽처럼 만들어 먹으면서 버텼죠.

그러다 보니 처음에 참여했던 친구들도 대부분 다 공장으로 복귀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조합원들마저도 사업주들의 악덕 선전, 강패집단이라는 유언비어에 넘어가서 제대로 참여하는 사람이 좀 적었어요. 몇몇 용기 있는 여성조합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사무실에 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사업을 생각하건대 체불임금 해결하는 거였어요. 적극적으로 했죠. 돈 못 받은 사람은 다 우리한테로 오세요, 열심히 알렸죠. 찾아오면 우선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3개월치의 조합비까지 받았죠. 조합비를 내야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그래서 상담할 때 일한 기간과 못 받은 임금의 액수 등을 메모해서 사업주를 불렀어요. 사업주에게 연락하면 처음엔 당신들이 뭔데 오라 가라라며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개는 사무실까지 왔어요. 서로 만나면 상담 메모지를 놓고 체불임금 이야기를 하죠. 임금을 왜 주지 않았냐고 물어요. 그때부터 재는 근무태만이 어떻고, 재는 어떤 점이 문제고 등등 이런 얘기만 장황하게 늘어놓아요. 자기가 임금 안 주는 게 정당한 것처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주고받다가 꼭지가 돌면 약간의 우격다짐이나 무력행사를 하기도 하고, 아주 악질들은 정말 배 찢라고 하면서 돈을 안 줘요. 돈을 빼앗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노동청에 가서 노동조합 이름

으로 진정을 넣어요. 그리고 근로감독관한테 찾아가죠.

이수호 해결해 줘라.

임현재 해결해 줘라. 그런데 처음에는 니들이 뭐 하는데 진정을 해, 이런 태도였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전태일 분신으로 탄생한 노동조합이라는 상당한 이름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안 되면 노동청장실로 간다든지. 하여튼 여러 수단을 동원해서 압력행사를 하니까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조합원들과 많은 금액의 임금을 해결했죠.

그것과 병행해서 의식화 교육이 문제잖아요. 사람들이 왜 내가 여기에 참여를 해야 하는지 알아야 올 거니까 그래서 교육이 중요했는데. 처음에는 아프리(아시아-아메리카 자유노동기구) 도움으로 영사기 같은 것도 가져와서 시청각 교육도 하고, 교회 같은 곳을 빌려서 큰 규모의 군중집회를 열어야겠다 계획했죠. 그때 연예노동조합이었지. 기억나나? 지금 종합시장 4층인가 5층에 텅 빈 공간이 있었어요. 점포들이 아직 입주를 안 하고 있었는데 연예노동조합과 협조를 해서 거기다 하춘화를 초대한 거죠. (웃음)

이수호 그랬어요? (웃음)

이승철 그때가 71년 노동절이야.

임현재 하춘화를 초대해서 조합원들을 모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할 줄 몰랐죠. 평평한 데다 야트막한 무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하춘화가 딱 올라가는 순간 뒤에 있던 사람들이 짹 밀고 들어와버

리니 (웃음) 완전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야.

이승철 그때 큰일 날 뻔했어. 사람들이 앞에 많이 앉아 있고 뒤에는 서 있었는데, 앞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뒷사람들이 보자 보자 하면서 밀고 들어왔지. 그러니 앞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앞 무대로 밀려오는 바람에 아주 큰 사고가 날 뻔했어.

임현재 큰 사고가 날 뻔했죠. 하춘화를 대피시키느라고 (웃음) 혼났죠. 하여튼 그리고 그때 같이 병행했던 사업이 등산대회예요. 부녀부장이 정인숙으로 바뀌었는데, 정인숙이 특기가 JOC(지오씨) 그룹 활동을 했어요. 그룹을 만들어서 조합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제도도 만들고, 그런 활동을 통해 조합원들을 늘려나갔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1월 9일 노사협의회 조인으로 해서 조금씩이라도 전임자 수당이라고.

이승철 아니. 그날이 아니고 4월 15일에 단체협약체결을 했어. 그때 전임자 임금을 개인 1인당 1만 5천 원씩 받았지.

임현재 그러니까 상당히 안정이 된 거지. 노조가.

최종인 1년 지나서.

이승철 아니라니까.

최종인 아니야.

임현재 1년까지는 아니야.

이승철 사업보고서 보여줄까?

최종인 71년도야 그게.

이승철 그러니까 1년이 안 되지.

최종인 그런가.

이승철 71년 4월이니까 몇 개월밖에 안 돼.

임현재 그다음 해 봄이야.

이수호 했수로 1년이라고 해. (웃음) 그다음에 4월 5일?

이승철 4월 15일.

이수호 4월 15일에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이승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5월인데. 그런데 처음부터 순조롭게 안 들어왔어요. 몇 달이 지나고 난 뒤 한 8월쯤부터서 정상적으로 1만 5천 원씩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도 돈을 건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돈 받은 건 거의 1년쯤이라는 소리야.

이수호 그러니까 그때 사용자는 평화시장, 뭐 여기.

이승철 동화시장, 통일상가 쪽.

이수호 업주들이 모여서 했는데. 그리고 아까 기록 얘기도 했지만 그때 주로 서기, 총무 담당하면서 기록을 아주 꼼꼼하게 하고. 아까 쉬는 시간에 1년차 대의원대회 보고서를 잠깐 봤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세밀히도 기록했던데. 특히 조합원 수의 증가 부분, 조합원 수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이승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흘렀고.

이수호 그러니까, 50년 전 얘가지. (웃음)

이승철 그랬고. 전태일기념관이 생겼을 때 자료들이 필요하다 하니, 내가 1년마다 열리는 대의원대회의 사업보고서 10년차를 다 가지고 있어서 기념관에 기증을 했고. 그런데 70민노회에서 70년대 민주노동운동 희망과 현장, 그런 글을 써야 했는데 그걸 봐야 기록을 알겠더라고. 그래서 기념관에서 가져간 것 가지고 찾느라고 무지하게 힘들더라고. 그런데 마침 다큐 찍는 감독님들이 잘 가져다줘서 쓰긴 했죠.

그걸 보면서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1년 만에 조합원 4,547명이 가입을 했는데 2년차 사업보고서에서만 7,802명인가로 기록돼 있어. 그런데 사실 2만 7천 명이 되지는 않아요. 그때 통계로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조합원 수는 1만 5천 명 정도밖에. 조사통계부를 보면 나오는 게.

임현재 그때 2만 7천이라는 통계는 전체 평화시장의 공장이 몇 개일 것이다. 그것도 정확하게 센 것도 아니야. 재단사 수도. 그래서 한 공장에 아무리 적어도 10명에서 많게는 30명이니까 평균 16명 정도는 된다. 그걸 사업장 수로 곱해서 그렇게 한 거야.

이수호 전태일이 대통령한테 쓴 편지도 그렇고. 곳곳에 보면 어떤 데는 2만 명, 어떤 데는 3만 명, 이렇죠.

이승철 그래서 우리도 편의상 태일이 말을 맞춰주기 위해서 2만 7천 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노동조합하면서 조사는 1만 5천 명까지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2년 만에 7,800명을 가입시켰다는 것은.

이수호 2분의 1을.

이승철 엄청난 일. 이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수호 단위사업장도 아닌데.

이승철 아까 1년 예산을 보니까 96만 원이었어. 그런데 우리가 받은 노임이 2년에서 3년 만에 천몇백만 원을 받아줬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체불임금에 올인을 하는데.

12월달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임금을 못 받았다고 해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미싱이랑이 다 공장에 있대요. 그것이 원단 장사한테 어찌해서 담보로 잡혀 있다는 거야. 이유를 알아보니 공증이 돼 있던 건데, 그래도 우리가 젊은 패기로 받아내자고 의견 일치를 보고 사장을 잡았어요. 사장에게 ‘당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건 안 된대요. 우리가 무슨 소리, 허튼소리 말라고 압력을 가했더니 임금으로 주겠다는 양도각서를 받아냈어요. 그 공장에서 잠을 자고 새벽 4시에 그걸 들어내서.

이수호 미싱을.

이승철 예, 미싱이랑 연장들을 팔아서 짝 월급으로 나눠 주고 다 해산해버렸어. 며칠 있으니까 검찰청에서 연락 왔어. 그 때문에 양승조와 우리들이 다 잡혀갔어요. 그게 법으로 강제집행면탈죄라 모두 무릎 꿇고 앉아서 엄청 맞았어요. 벌금이 나왔는데 다 2만 원씩이 나왔어. 그때가 70년 12월이니까 나는 호적에 나이가 네 살이나 어린 나이로 올라가 있었지. 임현재도 그렇고. 그러니까 둘은 벌금이 안 나왔을 거 아냐. 나는 안 나왔거든. 다른 사람들은 2만 원씩 나왔는데 그 사람들한테만 벌금을 내게 할 수 없어서 돈이 없었지만 벌금을 나눠 낸 기억이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임금 받아주는 활동은 최대한 노력을 했고. 그 이후에도 돈 받아준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12월에도 그랬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태일이 일기를 보고 이랬구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놀라고 감동하고. 어찌 됐든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김영을이를 중심으로 놀았고 뭉쳤던 사람들이었지. 하여튼 임현재도 구치소에서 나오자마자 노조로 왔지. 어디 자기가 돈 벌러 갈 수도 없고. (웃음)

이수호 전과자가 돼서 나왔으니까. (웃음)

이승철 그렇게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때 장기표 씨가 많이 찾아 오더라고요. 어머니도 장기표 씨 영향을 엄청 받았어요. 제가 일을 할 때도 토요일 같은 경우는 어머니 집에 갔고. 그럴 때 집에 와서 이야기하는데 장기표 씨가 나의 의식을 바꾸는 데 엄청 노력을 했어.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죽어라고 열심히 기술을 배워서 재단사가 되어 돈을 벌어서 잘살아야 되겠다고 했다면, 70년 12월에 장 형을 만나고 나서 한두 달 사이에 세상은,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고. 또 김문수를 만난 3월 이후에는 세상을 바꾸는 데 나도 뭔가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면서 내가 의식이 변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태일 때문이라기보다 나의 마음이 변한 것 때문에 운동을 계속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73년도 노동교실 개관할 때 탄압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내가 사무장이었거든. 그때 최일호 씨가 없고 이선두라는 사람이 있었죠.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은 관을 등에 업고 자기가 지부장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 있을 때 그 사람이 식순 같은 것을 자주색으로 써서 왔는데 빨갱이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되고. 그리고 함 선생님이 결정적으로 오셨죠. 그날 육영수가 오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내부적으로 몰랐죠. 그런데 함 선생이 왔으니까, 함석헌 씨.

그러니까 그걸 보며 발각 뒤집어져서 책임을 따지는데 ‘이승철이 저놈이다’ 그렇게 내가 딱 찍혔지. 그때 조금 주던 전임자 임금도, 조합비 걷어주는 것도 안 돼, 공장에 출입도 못 해. 그러니까 노조가 완전히 마비가 됐어. 그래도 장기표 형이랑 어머니가 계속 버텨야 된다고 해서 내가 몇 개월을 버티긴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종인이라도 “솔뚜껑을 그래도 약간 열어야지. 이게 터지면 되겠냐” 그러고.

그때 우리 친구들, 여덟 명 있었지? 신정은 씨라고 신기호 씨 동생이 있었고. 양승조, 맨날 고등학교인가 다닌다고 청카바 입고 머리도 짧게 자르고, 저녁에는 우리 조사에도 안 오고. 신진철이도 그렇게 다니고.

그래서 그 세 사람하고 나, 네 명이 사표 내고 그만두죠. 그리고 나한테 변화가 약간 와. 뭐냐면 학생운동하고 노동운동은 다르다. 노동운동은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는 거고. 또 장소가 있어야 되니까 노동조합의 존재가 필요하고. 학생운동은 와서 한 번 데모하고 도망가면 그뿐이었고.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학생운동하고는 다르니까. 그래서 거기에 내가 약간 변화를 줘.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면, 아니 근로기준법만 지킨다고 되느냐 이거야. 이 독재정권,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난

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법을 뛰어넘는 요구를 해. ‘법을 지키라’ 하는 것만으로는 혁명이 안 돼. 쉽게 말하면 그걸 뛰어넘어야 해. 근로기준법에 작업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도 지켜지지 않아서 싸움이 나고, 그 싸움에서 이겨야지. 이것이 좋은 말로 하면 개혁이고 좀 위험한 말로 하면 혁명적으로 하는 거고.

나는 우리 노조를 생각하는 방향에서 그랬는데 그로 인해 내가 탄압을 받게 된 거고. 어떻게 보면 약간 조합주의식으로 돌아갔다고는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고. 그때 활동하면서 나랑 부딪쳤던 조합원들이 지금 생각하면 이럴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들 스스로 노동운동을 했다고 하겠지만 내가 보는 거는 안 그래. 학생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가 부딪친 거였고, 70년대 평화시장은 모든 활동하는 지식인들의 실험장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들이 떠난 거는 소련이 해체되고, 소비에트 연방정부가 해체되고 나서. 그때는 이미 전두환이가 (웃음) 들어섰던 때고. 그래서 떠나게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죠. 어쨌든 70년대 그 노동조합을 움직이고 했을 때 우리들의 대장은 최종인이었어요.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임현재 최종인이 대장 시대가 무너지게 된 게 실은 75년 추도식. 75년 추도식을 산소에서 지부 집행부 주최로 했어. 예년에 하던 식으로. 그랬는데 다음 날인가 그날 저녁인가.

이승철 그날 저녁.

임현재 그다음 날 저녁 아냐?

이승철 아. 그날 저녁.

임현재 그날 저녁에 노동교실에서 또 다른 추도식이 열리는 거야. 그걸 최종인이라도 모르고 임현재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 그랬는데 변화된 의식, 즉 학생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조합원들의 의식은 이미 상당히 고조되어 있죠. 옛날 우리 초창기에 임현재 최종인이가 주도하던, 임현재 최종인이 말이면 무조건 따랐던 그런 조합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최종인이나 임현재나 모르고 있었던 거고. 그래 그거를 어머니한테만 알렸던가 해서 벌어진 거야. 열 받아서 그 뒤에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도 조합원들 편을 드신 거고. 그때부터 내부에서 집행부와 다른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노동교실 점거 투쟁도 하고 주휴제 실시, 그런 시위도 하고. 몇 건의 시위가 자꾸 벌어지는 거야. 집행부에 알리지 않고 자기들 독자적으로.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도 “야, 개들이 하는 거 맞잖아. 개들이 하는 거 놔두고 니네는 모른 척 니네 일만 해” 이렇게 입장을 견지하시니까 항의성 사표를 내자. 그래서 따라서 나도 내고. 나는 그때 냈으면 안 되는데. (웃음)

이수호 어떻든. 아주 초창기, 장례 치르고 급하게 결성을 하고. 처음으로 한 사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체불임금 받아주는 사업. 그 사업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고 필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조직 활동을 하고.

이승철 네. 조직.

이수호 1년 사이에 뭐 4천 명.

이승철 그다음.

이수호 2년에 7천 명 이렇게 되는데.

이승철 또.

이수호 잠깐만요. 그 초창기에 지금 두 가지 얘기했는데, 대장이
라고 애길 하는.

최종인 아니 저는 대장이, 저는 대장 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웃음)
이 사람들이 대장인데 니가 대장 해라고 해서, 앞장서서 한 번 해본 것밖
에 없어요. 제 의견을 제시해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맞잖
아. 이 사람들이 나를 세워서 대장하되 니는 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
왔던 거고. (웃음)

이승철 언제 말을 하지 말라고 했어. 자기가 말을 안 했겠지. (웃
음)

김영문 아니 친구 중에서 제일 먼저 지부장을 했잖아.

최종인 (웃음) 아니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조직의 목표를 세 갈
래로 잡았어요. 첫 번째는 근로조건 개선, 두 번째는 휴일, 그다음이 노조,
체불임금특별위원회. 하루에 체불임금 처리가 열 건도 있고, 열댓 건 들어
올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임금을 못 받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노동청인 줄
알고 우리한테 진정서를 내요. 그걸 멀리 있는 사람이 처리하기 힘들잖아
요. 전화상으로 구라를 친 거죠. 빨리 와라, 여기 진정서 들어왔다. 오면 다
즉결 해결해요. 행동을 하든 몸으로 부딪치든, 우리가 꺼지든 둘 중의 하나

가 까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내가 조장하면서 고개 확 돌리
면 밖에 가서 싸움이 붙어요. 그런 식으로 (웃음) 해왔던 거요.

이수호 조지는 사람이 있어. (웃음)

임현재 아니, 그건 오해고. (웃음)

이승철 아니 그 얘긴 그만하고. (웃음)

김영문 신진철이가.

이승철 이제 제가 얘기할. (웃음)

최종인 아니. 내가 이야기할게요. (웃음)

이승철 어디서 깡패, 우리 깡패 아니요. (웃음)

최종인 깡패집단으로 소문이 난 거요, 우리가. (웃음) 지난번에
도 이야기했지만 전라도 깡패집단. 여기에 깃대를 꽂은 자는 경상도 대
구 앤데.

이수호 전태일.

최종인 전태일인데, 왜 전라도 사람들만 모였냐. 상근 간부들이
전부 전라도 사람이예요. 목포, 나주, 고흥, 저는 영암 그리고 함평. 뭐 전
라남도 사람들만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 깡패집단이라는 소리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타개하기 위한 작업으로,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이미지를 좋게 하자. 노사 관계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름에는 공무원들이 입고 다니는 점잖은 하얀 남방을 입고.

제가 예를 하나 들면요. 전순옥이 당시에 쌍문동 어느 가내공업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해고를 당하고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안 놔두겠다 하니까 성북경찰서 정보과에서 우리를 보자고 해요. 성북서 정보과에 어머니하고 같이 갔어요. 전순옥이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정보과 마당에 잔디 같은 걸 깔아놓은 게 아니라 아침에 맨바닥에다 물을 뿌려요. 물을 뿌리면 시커메요.

이수호 시멘트.

최종인 시멘트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보과장이 왜 전순옥이에 대해서 당신이 개입하냐고. 그래서 어머니가 따지고 저도 따졌는데 어떻게 하다 그 사람이 약간 반말을 쓰면서 싸가지 없다는 투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하얀 남방을 입었잖아요, 여름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 맥살 잡고 그냥 굴렀어요. 너는 죽인다고 나하고 둘이 죽자.

이수호 정보과장을. (웃음)

최종인 네, 정보과장. 구속시키려면 시켜라, 이렇게 해서 웃은 완전히 버렸지만 임금문제는 바로 해결한 적이 있어요. 그런 예를 든 건 체불임금을 그렇게 중요시했다는 거고. 또 한 예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노사협의회 대표인데 대위 출신이고 월남 참전용사래요. 그런데 좀 안다고 사사건건 노조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마침 그 집 미싱사 체불임금 건으로 저한테 진정서가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이 잘 걸렸다 하고. 노사협의회 대

표인 제가 다뤄야 하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못된 걸 대신해서 사과합니다” 했죠. 지난번에 얘기한 그런 과정이요. 그런데 욕을 한단 말이죠. 애가 잘못된 거라고 하면서 막 쌍소리가 나오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해. 쌍! 다시 한 번 쌍!” 그러고서는 체불임금 해결하라고 하니까 탁자 위로 올라선 거예요. 운동선수라.

이수호 그 사람이?

최종인 대단히. 다 찌그러져버렸어요. 아수라장이 됐는데. 우리 간부들이 신진철이하고 딱 잡아서 눕혀놓은 것을 발로 밟았어요.

이승철 아, 그 강패 같은 이야기는 하지도 마라. 오해. (웃음)

최종인 실제 상황이니까. 그리고 자기 부인을 오라고 해서 그 광경을 보여준 거예요. 부인도 악질이래. 부인도 노조 간부들이 가면 그렇게 욕을 한대요. 여하튼 그 부인이 와서 데려간 거요. 그 사람 진단이 4주 나오고, 저는 하나도 안 다쳤긴 했는데 약간 까진 부분이 2주 나와서 쌍방 고소로 하다가 말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체불임금에 대해 특별히 다루어왔다는 거.

임현재 나 없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거구나. (웃음)

이승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뭘 해결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 제가 이야기 더 드리고 싶은 건 체불임금 문제로 조합원도 가입을 시켰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것은 주휴일, 일요일 일하는 문제. 그다음에 야간

근무. 그 조사를 우리가 엄청 다녔어요. 사업장을 조사해서 고발을 하는 게 아니고, 딱 들어가면 “불 내려. 누가 여기 일하라고 했소”. (웃음) 이거는 완전히 지금 같으면 할 수가 없는 얘기죠.

이수호 근로감독관도 못 할 얘기를 했구나. (웃음)

이승철 근로감독관도 절대 안 하죠.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러고 오면 뒤로 전화가 와. 고맙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밤에 일해라 하면 그걸 또 하는 애들이 있어. 제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니다 보면 공장 장들하고 먹살을 잡고 시비가 붙어. 그러니까 힘이 딸려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유도를 13개월 동안, 6시 되면 가서 배우고 다시 와서는 야간 조사를 했죠. 그때부터 시비가 붙으면, 유도라는 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힘을 이용하는 거거든. 어떻게 하면 몸이 쑥 뜨고, 몸이 뜨고 그러면 안 덩벼. 그걸 해서 조합 가입을 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4,047명. 노동조합을 해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받았냐 그래. 그런데 오늘 보니까 2년 만에 7,800명이야. (웃음)

임현재 그때 유니온숍 제도 그거 때문에.

이승철 아니 유니온숍은 76년도에 됐고. 유니온숍이 아닐 땐데 이게 한 5년이 지나면서는 조합원이 딱 줄어. 우리가 최고 많이 받았을 때는 1만 2천 명까지 있었는데 이동된 사람들을 싹 빼고 나니까 딱 줄어요.

그때 당시는 정말 우리 친구들이 모든 인생을 노동조합에 걸었어.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하여간 누가 뭐라던 대단한 사람들이야. 조직도 했지, 사업으로 교육도 무지하게 했어. 조사도 많이 했지, 체불임금도 죽어라 하며 받아냈지. 노조 가입원서 받으러 다녔지. 대여섯 가지를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최일호 씨가 행정 능력이 있어서 청계노보도 만들고, 또 초창기부터 잘 쓰지 못했던 복명서, 간부들이 세미나 한 번 참석해도 자료 붙여서 보고하고.

최종인 승철이가 이야기하듯이 간부들, 우리 친구들이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평화대학을 나왔다고 하잖아요. 성장하게 된 과정을 잠깐 얘기하면요. 저도 고대 노동연구소에 다녔어요. 웬만한 세미나, 교육은 다 쫓아다니고. 그 속에서 우리도 배워야 된다는 사명도 가졌죠. 그래서 크리스찬아카데미에 다 다녔잖아요. 교육프로그램에 모두 참석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서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노조를 잘 이끌어야 전태일 정신을 이룰 수 있다.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잊을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뿐이었어요.

외부에서 여기를 어떻게 개선해 보라. 정치적으로 놀아라. 저는 일체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노동조합 활동만이 전태일 정신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했지 더 차원 높게 정치적으로는 생각을 안 했어요. 어머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니까 정치적으로 더 차원 높게 데모를 하고 또 어떻게 하자고 했지만 저는 그걸 절대 반대했어요. 그런 부분이 어머니와 저희하고 차이죠. 그동안 해왔던 과정에서.

저는 오직 노동조합의 교육사업. 김수환 추기경이 우리를 많이 도왔어요. 연소근로자 위원장직을 명동성당에 가서 했거든요.

이승철 문화회관.

최종인 문화회관인지 어디서도 했는데. 김수환 추기경, 많은 재야 인사들, 기독교 등 종교계 인사들이 엄청난 관심으로 지켜보면서 도와주

있죠. 우리가 올바르게 하니까, 친구들이 잘못 가면 도와주겠어요? 전태일 정신인데. 올바르게 가고 있으니까 수많은 단체에서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왔고.

특히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학생들이 여기로 실습 나와서 계속 같이 행동을 했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장족의 발전이 이뤄진 것 같아요.

이승철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얼마나 여기 집중을 했냐면 특히 장기표 씨 같은 경우, 아까 이야기처럼 종인이가 76년에 사표를 다 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부장이 됐어. 그런데 장 형이 보자면서 창동으로 왔어. 나보고 전 집행부가 어용이었다, 이런 성명서를 내라는 거야 나한테.

이수호 장기표 씨가?

이승철 무슨 소리냐 하니까, 그래야 다음 집행부를 그 사람들이 꼬시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는 거야. 내가 그건 절대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했지. 자기도 어용이 아닌 줄 아는 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최종인이랑 임현재랑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난 절대 못한다고 했어.

나하고는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는데, 민중덕이하고 양승조도 성명서를 내야 된다는 거야. 지부장이 이걸 내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친구들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는 게 아니고, 진짜 창동에서 치고받으며 싸우고 그랬어. 너희 그거 내면 바로 노동조합 깨진다. 친구들이 지금 그냥 물러나는 것도 운동의 차이지. 그들은 어용한 적이 없는데 그걸 낸다는 건 안 된다. 그때 내가 느꼈던 것은 지식인들이 여기를 전쟁터로 삼고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말해 도태시키는.



새마을노동교실 개관식, 1973년 5월 21일, 이승철.



청계피복노보 제1호 새마을노동교실 설립을 알리는 1면 기사, 1973년 1월 10일, 전태일기념관(유정숙 기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년대 내내, 그러니까 김세균 씨 같은 경우도 76년도 노동교실에서 한 3개월 동안 김씨 아저씨라고, 재단사라고 와서 있으면서 애들 만나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거기는 완전히 그런 곳이야. 이재오 씨 같은 경우도 공부, 중고등 교육하는데 와서 한문 가르쳤고. 그때 대신고등학교.

이수호 국어 선생.

이승철 3학년 선생인가, 뭐 그래서 한문 가르칠 때 이민이라고 해서 왔어요.

이수호 가명.

이승철 네. 그리고 또 5·18 광주도청에 끝까지 있었던 이양은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전남대학교 학생운동 하다가 수배가 됐었는데 갈 데가 없었나 봐. 내가 지부장인데 장명옥 씨가 와서 “지부장 이 사람 좀” 그래서 교실에 왔어. 그 친구가 청소하고 잡일하면서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서 풍천화섬 사건도 만들고 뭐 많이 했지. 그러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지식인들의 실험터였다고.

이수호 자, 그렇게 출발한 청계피복노조. 아까 조합원 수가 그렇게 느는데. 그게 단일 기업이라든지 큰 공장 같으면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산별노조잖아요. 10명 정도가 그걸 모아서 했으니까 정말 대단한데. 또 그걸 구체적인 다른 사업과 연계하면서 정말 우리는 잘해야 된다는 해서 해왔는데.

어떻든 영문 씨는 군대를 갔다 온 뒤에 불러서 가고. 우리 조영래 씨가

민청학련 사건 때문에 수배된 상태로 전태일평전을 쓰기 위해서 어머니하고 만나고.

김영문 네. 그때가 74년도 같아요.

이수호 그러면서 그 당시 상황 때문에 영문 씨도 만나고 그런 것 같은데. 결정적 시기에는 좀 떨어져 있었는데 혹시 그 무렵에 다시 복귀하면서 재밌는 일 생각나는 게 있으면.

김영문 저는 당시 이 친구들이 다 노조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오라고 하면 참여하고 그랬을 때죠. 저번에 한번 어머니가 오시더니 시간 내서 어디 좀 같이 가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간 곳이 바로 서대문, 홍제동에 성도극장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그쪽 홍은동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 잘 알죠.

거기 중국집에 간 거예요. 나는 그때 그분이 조영래 씨인지도 모르고, 작업복을 입었던 것 같아요. 중국집 안에 있더라고요. 그날 만나서 한 이야기를 전달하긴 했어도, (웃음) 하도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날 13일 그 상황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런 거죠. 제가 가장 가까이도 있었고, 또 어머니를 모시고 왔고 했으니까 아마 조영래 씨가 나를 만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평전에 보면 그 부근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그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번 자리에서도 그 상황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구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76년도에 하고 양승조가 그 뒤에 했나? 양승조가 그 뒤에 한 거지? 77년도.

김영문 그러니까 77년도 78년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최종인이 나에게 니가 좀 해줘야 될 것 같다고 그래요. 사실 저는 일류 재단사로서 일 잘하며, (웃음) 잘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친구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 또 내가 그간에 못 했던 거를 이번 기회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노조가 어렵다 그러는데 나는 노조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만 해도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은 몰랐고.

그래서 사장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요. 장충사라고 아동복 바지를 상당히 크게 했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너. 뭐 하는데 지금 거기를 가려고 하느냐. 거기가 뭐 좋은 데라고” 하면서 막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장한테 그랬어요. “저는 가봐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렇게 거기를 그만두고 나와서 78년도에 양승조가 아직 지부장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들어가서 했는데 저는 한 1년도 안 있었어요. 안 있었는데.

그때 장충사 아줌마가 자꾸 우리 집사람을 꼬시는 거예요. 신랑이 자꾸 그런 데 가서 그런 일 하게 하나. 우리는 재단사가 그만두고 나서 공장을 돌릴 수가 없다. 다른 재단사를 구해서 해봐도 저만큼 사실 못해줬다는 이야기예요. 집에만 가면 마누라가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면 나는 어차피 재단사 계통으로 계속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만두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 임현재 지부장이 하고.

그리고 나서 5·18이 일어나는데 5·18에 고생들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나는 그래도 참 어떻게 그런 순간을 모면하는 건지, 우리 친구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다고. 내가 그래서 항시 그 부분을 미안하게 느낀다니까요.

5. 남겨진 이야기들

이수호 그래요. 어쨌든 전태일 열사 돌아가시고 정말 새로운 기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70년대를 정말 뜨겁게 사셨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하는 얘기는 그 정도까지 하는 걸로. 처음에 계획하고 목표했던 부분까지 선생님의 얘기들을 대체로 들어봤으니까요. 들어보면서 참, 저도 나이가 비슷하니까 동시대를 살아왔는데 내 삶과 자꾸 비교하면서 그때 난 뭐 했지?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끄러움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의 삶이 있고 자기의 운명이 있으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늦게라도 (웃음) 이렇게 만난 게 축복이기도 하고 보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지금까지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하지 못하셨거나 또는 보충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들어보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시 더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고.

50년 전에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친구는 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운명이 돼서 다른 모습으로 전태일하고 같이 50년을 살았어요. 만약 지금 우리가 전태일하고 있다면 하고 싶은 얘거나 또는 70년대를 겪은 그 당시 과거의 자신들. 아까 쉬는 시간에 자꾸 혼란스럽다. 그때로 갔다가 (웃음) 지금의 생각으로 자꾸 그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냐 하기도 했는데, 그런 과거의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명이 길어져서 제가 보기에 20년은 건강하게 더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승철 제가 하나. 좀 덜한 이야기인데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구슬을 하면서 느낀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친구들이 정말 뭉쳐서 열심

히 잘했구나 하는데 사실 무지하게 싸움을 많이 했어요. (웃음) 대가리 터지게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큰 감정 없이 이야기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태일 정신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웠던 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운동을 가지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면 전태일을 살릴 수 있나.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라는 건 근로자들이 사용자 몰래 결성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신고를 하고, 이후 신고필증을 받고 노동조합이 되는 건데 유일하게 관에서 노동조합에 결성 지원이라는 약속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관에서 만들어준 거거든요. 조합원이 하나도 없었는데, 조합원이 없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했었고. 그런데 전태일 정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아까 최종인 씨 이야기하는데 그때 싸움을 참 많이 하니까 최일호 씨가 한번은 술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이 친구들”, 난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남산에 올라가서 평화시장 한번 봐봐. 평화시장 담뱃갑처럼 적어. 조금 마음을 넓게 갖고 해.” 그 이야기가 저한테 들어왔었고.

그다음 기억나는 말은, 나한테도 그러고 친구들한테 “무엇을 결정하려 할 때 빨리 결정하지 마라. 그런데 빨리 결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면 상담할 수 있는 선배를 하나 두라. 그건 선배를 만나서 선배가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고 좀 쉬면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다.” 최일호 씨한테 배운 것 중에는 그 두 가지가 참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이사장님 이제까지 사회를 보셨잖아요. 맨날 우리 이야기만 했는데 이사장님은 전교조 활동을 하실 때가 언제였고 어떻게 하시게 됐나. 그리고 전태일평전은 언제 보셨는지. (웃음) 그다음 민주노총을 그만두신 이후에 노동운동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웃음)

이수호 (웃음) 그래. 친구들 구술이니까 먼저 하시고, 아까 그 말

씀을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보충해서 말씀하셔도 좋고. 또는 지금의 심정이나 아까 전태일 그 친구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

최종인 저는 전태일을 만나서 지금도 미안한 감정을 가져요. 죄송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보람되게 생각을 해요. 참 행복하다.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첫째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전태일기념관이 건립됐다는 것에서 너무 뿌듯하다. 그곳에서 우리 친구들이 만나서 태일이를 주제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다. 거기에 주 인물이 이수호다, 이런 데서 전 감사를 느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추억을 생각하면 어머니. 어머니는 우리 친구들이 진짜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중간에 약간 쉼 적이 있지만 끝까지 모셨는데, 어머니의 통찰력이나 그렇게 과감한 결단력이 없었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까. 어머니를, 친어머니를 잘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노조 결성 과정에서는 김성길이를 잘 만났다. 한국노총에 그래도 젊고 패기 있는 지도자인 김성길이를 잘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의견 차이 때문에 김성길이는 갔지만. 그다음에는 우리에게 실무적인 노동조합 교육을 시키고, 노사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최일호 선생이라고.

이수호 아까 말씀하셨던.

최종인 최일호 선생이 전남대 법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연합노조, 한국노총 조사통계부장을 했는데 이 양반이 호인이예요. 양심이 아주 바른 사람이에요. 인상만 봐도 너무 바른 사람이에요. 누가 시비를 걸면 피하는 사람. 그런데 담배를 너무 좋아해요. 글을 잘 쓰는데 담배꽁초까지 피우고 나머지 또 연결해서 피우는 양반이에요. 그땐 내가 담배를 안

피워서 “선배님, 담배를 그렇게 피우시면 해로운데요” 그러니까 10년을 단축하기 위해서 담배를 피운다고 그래요.

저 양반은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항상 집에서도 나는 5년밖에 못 사니 나는 노티치 해라. 앞으로 삶이 5년밖에 안 남았다. 5년 살고 나서 또 5년밖에 안 남았다.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제가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일호 선생의 온화한 정신으로 노조의 행정을 배웠고,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빠른 성장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는, 이 친구들은 굉장히 선량한 사람들이예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이승철이 같은 컴퓨터가 있잖아요.

이승철 아이고. 내 얘기 좀 하지 마. (웃음)

최종인 아니, 진짜 이승철이가 컴퓨터잖아.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지난 이야기 다 잊어버렸는데 날짜까지 기억하고. 이승철이는 제가 알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 1등한 애야.

이승철 아이. 또 하지 마. (웃음) 접때도 해놓고 계속 내 이야기하지 마. (웃음)

최종인 지나간 이야기에 덧붙이면 그런 거고. 여기 친구들 이야기하면 영문이는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 묵묵하니 친구들 하는 일에 따라주는 사람. 너무 감사하죠. 어떨 때는 우리가 욕박지르기도 하는데 오해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따라주는 사람. 임현재는 자기주장이 확실한 사람이예요. 아니면 그냥 팽개치고 싸움 붙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친구로서 가족으로, 부인도 알잖아요. 조합 활동할 때부터 부인도 알고, 부인끼리도 알

고, 이 사람도 내 부인을 알고.

지금까지 70이 넘도록 가족처럼 모인다는 것은 대단히 행복한 일이다. 그러니 우리들은 복 받은 사람이다. 이게 다 태일이가 복을 줬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호 우리 똑 부러지는 (웃음) 현재 씨.

임현재 중간에 사실 좀 고민이 많이 됐던 시기가 있었는데 가족 관계, 부양책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 때마다 우리가 다짐을 했던 것은 뭔가 역사에 살았던 흔적을 남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게 확실한 전태일정신계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어제인가 아침 방송 엠비시 라디오를 들으면서 가는데 그 방송에서 전태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수호 올해가 50주기여서.

임현재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역사, 님은 이야기. 우리나라 노동운동가로서 전태일, 그 얘기가 꼭 나오는데. 상당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것은 전태일이 확실하게 보편적인 인물이 되지 않았다. 옛날에는 특별한 인물이었다면, 지금은 보편적인 인물로서 알려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내 삶은 성공한 삶이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성공하고 살 거야, 이런. (웃음)

우리 집, 양수리에다 조그마하게 집을 지어 놓았는데 가끔 밥 먹을 때 보면 햇빛이 마당까지 쏙 들어와요. 잔디밭이 아주 예뻐요. 행복을 느끼면서 삽니다.

이수호 우리 영문 씨, 법이 없어도 사는데 법이 있어서.

김영문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며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전태일이하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그냥 들어주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인지 그 친구가 나를 많이 찾아왔죠. 저는 항상 평화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자주 와서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평전을 보고 일기를 보니까 죽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삼각산에서 결정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듯이, 저는 사실 둘이 이야기할 때는 전태일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 “야, 한두 명은 죽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서로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날 현장에서 그 순간까지도. 참 생각이 우리하고는 정말 달랐던 친구였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죽고 나서 어머니, 아들의 죽음을 정말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순박한 어머니가 변화하게 되는데 그 마음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다음 정말 여기 있는 친구들. 친구들이 어머님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조합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또 그 후까지도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영래 씨가 평전을 쓴 것도 정말 지난번에 대구 가서 봤을 때, 그분이 살았던 곳과 전태일이 태어난 곳의 거리가 얼마 차이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서로가 통하는 점이 있었겠다. 또 죽은 전태일에 대해, 머리 좋은 조영래 씨가 평전을 썼기 때문에 오늘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노동운동이 아직도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마음에 차지 않을지라도 이제는 기념관도 만들어 뒀으니 무거움을 조금 내려놓고 쉬어도 되지 않을까, 마음을 내려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수호 위원장, 관장님이 있기에 이런 좋은 기념관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철 만약 태일이 지금 있다면, 그가 쓴 일기 속에 굴리다 굴리다 못 굴린 것을 자네들이 굴려주게, 라는 글이 있는데 그걸 불과 10년 정도밖에 못 굴렸다고 생각해요. 실제 행동은, 그 후의 삶은 그가 바라지 않는 삶을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끝까지 굴리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고 싶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후배들에 대해서 아주 미안해요. 80년대 운동을 했던 후배들에게 제가 좀 더 투쟁적으로 과감히 했으면 그들이 고생을 안 했을지, 아니면 좀 더 지혜롭게 했으면 고생을 안 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10년을 하고 노동조합이 없어져서 그들이 복구하기 위해 엄청난 투쟁을 했잖아요. 그것은 언제 생각을 해도 미안하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들도 전태일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인생이 아까 말한 대로 10년을 살지, 내일 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살아 있는 동안에 전태일 친구로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이수호 예. 더 보탬 말씀?

최종인 아까 후배들 이야기하니까 사실 청우회 참여했던 회원들이 꽤 많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100명도 됐다가 50명도 됐다가 30명도 됐다가. 전국에 각자 흩어져서, 분야가 다른 데서 각자 일을 하고 있는데 전태일재단에 관심을 가지고, 청우회 모임이 전태일 정신이거든요.

전태일 정신은 우리 친구들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청우회 회원들,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가 전태일 정신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청우회 회장으로서는 청우회를 잘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한편으로 청우회 회원들한테 항상 감사하는 마

음. 나는 청우회 회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전태일재단을 지켜왔다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떠나고 대장 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태삼이가 와서 대장을 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말리는 역할이라면 내가 태삼이라고 대화해서 만류하고 그러는데, 청우회 회원들은 못 말려요. 그러니 재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청우회원 이름으로 우리가 청우회 배경을 믿고 태삼이를 쥐어박기도 하고 욕도 하고.

이승철 쥐어박고. (웃음) 그런 용어를 계속 쓰는 게. (웃음)

최종인 그건 내 솔직한 가식 없는 얘기니까. 그럴 생각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태삼이를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청우회 회원들한테 감사하고 미안하다는 마음을 동시에 전하고 싶습니다.

임현재 태삼이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 조금 조심해야 될 문제야. 태삼이가 전태일을, 전태일재단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보다 더 간절할 거고 더 깊은 건데. 단지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지. 그게 꼭 태삼이 자체 때문은 아닌 거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때로는 조종을 받고 그런 거다, 하는 이해를 하면서 해야지. 종인이가 그동안 품어 안았듯이 우리가 그런 태도도 마음속에서부터 고칠 필요가 있다. 어떨 때는 막연히 귀찮고 방해만 하는 사람으로 낙인만 찍고 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서는 안 될 것 같아.

이수호 네. 쪽 들어봤구요. (웃음) 나한테 얘기를 하라고 하니 하기는 해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전태일재단으로 다시 불러오면서 그때 우리 임현재 선생님께서 대표로, 지금도 친구 대표로 이

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어떻게 하면 전태일 정신이 올곧게 살아 숨 쉬는 재단으로, 전태일 운동으로 해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저한테 같이 하자 그랬을 때 제가 “그럼 나도 친구해 주면 가겠습니다” 농반진반으로 이야기했지만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굉장히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지” 해서 시작했습니다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여기 있는 친구들. 먼저 간 전태일같이 시골에서 굉장히 가난하게 태어났죠. 어린 시절 얘기를 들으면서 쪽 보면 아주 다 비슷해요. 저도 학교 가기 전에 농사일을 도와야 했고 나무도 하고. 엄마하고 나물 뜯으러도 가고 그렇게 시골 산골에서 보내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도회지, 대구의 변두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도 역시 가난했고요. 다 비슷했는데 도회 변두리, 전 대구입니다. 아마 전태일도 대구 왔다 갔다 하면서 가출도 하고 그럴 때 같습니다.

그래도 도시여서 그런지 어렵게 중학교를 갔어요. 중학교를 갔는데 그 당시는 학교 다닐 때 등록금, 월사금 이런 돈을 냈잖아요. 그게 어려우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집에 돈도 없는데 어디 가서 억지로 꾸어 오겠나 했겠죠. 그렇다면 내가 뭔가 하면 어떻게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근로장학생을 한 거죠. 대구에 있는 중고등학교인데 사립이었어요. 거기 온실이 큰 게 있었는데 온실에 물을 주고 분갈이도 하고. 공부 마치고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가서 그런 일을 하면 등록금을 면해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거기 일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중학교를 졸업했죠.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갈까 그랬는데. 내가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뭔가 공부를 빠릿빠릿하고 열심히 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자꾸 인문계로 가라고 해. 어쨌든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때도 같은 중고등학교였으니 자연스럽게 고등학교에서도 근로장학생을 계

속한 거죠.

어렵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느냐 마느냐인데, 그런 인문계 고등학교는 무조건 다 대학을 가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아무리 봐도 집안 형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당시 공고 야간에 있었던 국립기술원 양성소라고 기술을 가르쳐주는 거기를 6개월인가 밤에만 다녔어요. 마치 공고 졸업한 것과 똑같은 자격을 줘서 공장에 취직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저는 거기를 다닌 거예요, 밤에. 낮엔 공부를 하고 밤엔 거기 가서 기술 배우고.

임현재 1인 3역을 하신 거네요. 학교를 두 개 다니고, 근로장학생 하고.

이수호 네. 저는 평생을 이상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항상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임현재 일복이 많으시네.

이수호 네. 쥐띠여서 그런가. 원서를 쓸 무렵이 된 거 아닙니까. 연말이 되니까 담임 선생님이 불러요. 대학원서 써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얘기를 했죠. 선생님, 저는 이래이래서 대학을 포기하고요. 기술을 배워서 취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기는 있어서 제가 먼저, 공장에 가서 돈을 벌고 그다음 제가 대학 공부를 하겠습니다. (웃음) 이렇게 말하고 나니 묘한 표정이죠. 그러면서 “그래? 알았다”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돈이 없어 안 된다는데.

그런데 얼마 뒤에 온실을 담당하는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이 다시 부

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는 기술 배워서 공장 가는 것도 하면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여러 가지 기질이 그냥 공부를 계속하는 게 좋아 보인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 좋은 건 그렇다 하더라도 형편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선생님들이 “그럼 야간대학이라도 가라, 그러면 낮에 취직을 시켜주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고집 피우기도 뭐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낮에는 취직을 시켜주고 밤에는 야간대학을 간 거죠. 취직을 시켜준 데가 (웃음) 내가 다니던 학교의 비정규직. 그 옛날에 급사라고 해서 심부름도 하고 잡일하는, 후배들 공부하는데 돌봐주고. 사실은 조금 쪽팔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야간대학을 나온 거죠.

그리고 사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이과였어요. 내가 원해서 갈 수 있다면 농대, 특히 원예과. 꽃을 키우고 가꾸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도 그런 꿈이 아직 조금은 있습니다만 그런 걸 해보고 싶었는데 야간대학에 농대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던 읽고 쓰고 하는, 그래서 국문과를 가게 된 거죠.

그때는 교사 자격증을 따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선생이 많이 모자랐어요. 딱 산업화 초기니까. 국문과인데도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따면 교사 자격증을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해서 교사 자격증을 따고 군대를 갔는데 제대할 무렵,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때 하필 울진 시골 조그마한 신설 중학교에 교감으로 가 있었어요. 시골이라 선생님이 잘 안 오는, 마침 그곳에 자리 하나 비어서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생각은 안 나고 하니까 제가 군대 제대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편지를 써서 보냈더라고요. 저는 고맙기도 하고 이왕 하는 거 시골에서 시작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울진으로 가요. 제대하자마자 바로 교사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학교를 가보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어려움이라든지 잘못된 거라든지 문제들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서울로 옮기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습니까만 교육이 지금처럼 같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교육 운동을 시작한 게 80년대 초예요. 사실 광주민중항쟁이 상당한 영향이 있었죠. 그리고 83년, 84년 그 무렵에.

이승철 전교조가 시작됐었는데.

이수호 전교조 이전에 교사들 모임. YMCA 교사, 이런 모임이 시작했어요. 거기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그때 전태일평전인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이 처음 나왔을 때 몰래 돌려 보고 했는데 어떻게 우연히 봤던 것 같아요.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 내가 이 나이 땐 전태일은 어쨌지? 이런 비교들을 하면서.

가만 보니까 내가 고등학교 갈 무렵이 전태일이 평화시장 갈 때예요. 내가 야간대학 3학년 때 태일이가 70년 분신하던 때. 나는 그때 이렇게 살았구나, 참 나는 정말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육운동을 시작하고. 연장선상에서 노동운동을 하고. 그런 무지렁이가 어찌다 보니까 전교조 위원장도 하고 민주노총 위원장도 하고.

민주노총 위원장, 전교조 위원장 할 때 혼자 그냥 어머니를 찾아뵙고 했어요. 명절 같은 때 과일 같은 걸 사들고 가서 인사드리고. 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참, 어머니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운명적으로 전태일하고 나이가 같으니까. 그렇게 찾아뵈었던 그런 정도.

그러다가 민주노총 위원장을 하면서 시위나 집회현장에서도 보고. 또 자연스럽게 민주노총이 전태일기념사업회에 적극 참여해서 일을 하고. 그래서 저는 전태일 35주기, 지금부터 15년 전이죠.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는데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전태일기념사업회, 전태일 운동을 구체적

으로 같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태일동상 세우고 다리에 이것저것 할 그 무렵이에요.

그리고 5년 뒤, 전태일 40주기에 뭔가 제대로 해야 하는데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제가 불려가죠. 제가 40주기 집행위원장을 맡으면서 전태일재단에 깊이 관여를 하게 되고 활동을 하죠. 그 역할이 끝나면서는 자연스럽게 전태일재단의 운영위원, 노동상 운영위원장 등등 구체적으로 맡으면서 들락날락하고. 먼발치에서 가끔 친구들도 보고.

임현재 그렇죠.

이수호 특히 마석 모란공원에서 11월 13일날 보면 친구들과 인사하는 그런 정도로 지내고. 그러다가 어머님 돌아가시고 우리 재단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는데. 마침 저도 이주노동해방센터 끝내고 갈등해결센터 일을 하고 있던 차에, 임현재 보니까 짱패데요. 저한테 이쪽에 안 오면 큰일 난다, 맞을래. (웃음) 그래서 할 수 없이 왔는데. (웃음)

최종인 할 수 없이 왔지만 잘한 것 같습니까, 못한 것 같습니까?

이수호 어휴, 전 좋죠. 제가 정말 이 나이에 좋은 친구들 다시 만나고. 어차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전태일과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건 없지만 같은 공간에는 늘 있잖아요. 활동하면서 저의 삶을 이런 식이라도 긴장하게 하고,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정말 더 여한이 없습니다. 전태일재단이나 기념관이나 마지막 봉사다 이런 생각으로 가고 있고.

2020년 올해가 50주기이고, 그 기념으로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만. 50주기까지 잘하면 정말 좋은 후배들, 청우회 이런 분들이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청우회 말이 나와서 말인데 오늘 우리 재단에서 회의할 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전태일 50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해 11월 27일 청계피복노조가 정식으로 결성돼서 깃발을 올린 그 50주기이기도 하잖아요.

김영문 네.

이수호 11월 27일. 그래서 우리 이숙희 위원장님하고 박계현 총장 이랑 회의하면서 올해 전태일 50주기이기도 하지만 청우회, 청계피복노조 50주기니까 멋있게 한번 해보자. 우리가 같이 좋지 않겠느냐, 후배들이 다 살아 있고 움직이고 있는데 얼마나 좋으냐. 저는 재단에서도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네 분은 전태일 친구 그리고 우리 청우회 회원들은 전태일 직계 후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전태일 운동의 핵심이고 중심이다. 지금까지 해왔고, 버텨왔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전태일이 특수한 인물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물로까지 사회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살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전태일을 독점하겠어요? 같이하면서, 늘 그 정신을 사회에 입혀서 우리 사회가 정말 전태일의 아름다운 풀빵 나누는 마음과 노동자들을 제대로 살게 하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승철 과거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어디 가서 친구를 하자 그러면 나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어떠한 일을 했었다 정도의 이야기를 해야 원래 친구를 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만 듣고 (웃음)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해야만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

래서 오늘 이후로 정말 친구로 (웃음) 저랑 친구들이 생각을. (웃음)

이수호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그래도 막걸리라도 한 잔 사주면서 뭐. (웃음)

이승철 오늘은 왜 그러냐면 기록을 남기고 싶었거든요. 이게 기록으로 남는 거니까. (웃음)

이수호 예. 그래요. 오늘도 끝나면 촬영도 해야 되니까. 우리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작가님? 혹시 좀 더 보태서 할 얘기 있으면. 지금 참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혹시 듣고 싶은 얘기 이런 거 있으면 지금 해주시고.

김대현 지금까지 정말 잘 들었구요. 제가 잘 모르고 그래서 폐가 될 수 있는 질문이거나 무지에서 나온 질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주 열심히 대답해 주셔서 정말 배운 게 많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수호 촬영감독님. 이숙희 위원장님, 듣고 싶은 얘기.

이숙희 아까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고 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평화교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수호 평화교실.

이숙희 그걸로 인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찾아갈 수 있



평화교실 제1기 중등과정 수료식, 1972년 8월 31일, 전태일기념관(최종인 기증).

게 해주셨거든요.

최종인 평화교실은 야간학교 중등과정을 3개월 수료 과정으로 꾸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구예요. 노조 설립되고 한참 후에 정인숙 부녀부장이 노조에 참여했는데 그 양반이 오면서 아카시아라는 조직을 통해 교육사업을 하자고 했어요. 그 교육사업은 대학생들이 강사고 전부 봉사입니다.

이승철 저기 YWCA 대학봉사단.

최종인 각 봉사단에서 파견했는데 장소가 너무 비좁으니까 저녁에는 책상을 밖으로 내놔요. 책상을 전부 내놓고, 사무실이 한 7평 되나요?

이승철 7평.

최종인 7평 정도 되는데 의자로 딱 채우면 20명까지 앉을 수가 있어요. 20명 기준에서 평화교실을 1기, 2기, 3기, 4기 계속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그것이 교육의 밑바탕이 되어서 차후 노동교실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육영수 여사가 이 얘기를 듣고 장소를 넓은 대로 마련해 주면서 새 마을 노동교실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수호 자. 우리 청계피복노조와 그 뒤 청우회로 연결되는 부분은 저희 기념관에서 노동구술기록사업을 통해 계속 해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우리 친구들과 여기까지 하고. 하반기에는 어떻게든지 가족들도 한번 구술을 받아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청계피복노조나 청우회도 우리가 한번 의논을 해서, 지금 다 살아 계시니까 모시고 청계피복노조가 쪽 걸어온 길.

최종인 그건 이제 우리 세대는 끝내고, 후배들로 해야지. 우리는 빠고.

이수호 그래도 좋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숙희 위원장님, 그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예. 지금까지 전태일 친구분들의 어린 시절부터 청계피복노동조합 결성, 그리고 70년대 암울한 시대에 활동을 했던 이야기까지 선생님들의 육성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의 인터뷰와 50년이라는 시차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되살려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들께서 겪은 경험들은 기록을 통해 전태일과 그의 세대, 그리고 앞으로 지속될 이후의 세대 모두가 공유하는 공동의 기억으로 남게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노동구술기록사업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전태일의 친구들 노동구술기록사업 인터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 용어

가다(がた): 두꺼운 종이로 만든 옷본.

각자: ‘ㄱ’자 모양의 자를 가리킴.

고안사, 고안: 도안사, 도안 용어가 현장 용어로 변형되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옷을 만들기 전 옷본을 디자인, 디자인하는 사람을 뜻함.

기레빠시(切れっ端): 재단 후 남은 자투리 천.

나라시(ならし): ‘고르게 한다’는 뜻을 가진 일본어로 원단을 재단하기 위해

여러 겹의 천을 펼쳐 쌓아 올리는 작업을 뜻함.

나마고(なまこ)자: 반달형이란 뜻을 가진 일본어로 곡선 모양의 자를 가리킴.

나혼바리(二本針)사: 쌍바늘이란 일본어로 두 개의 바늘을 사용하여 두 줄로

박는 기계를 다루는 일종의 미싱사를 가리키는 말.

다찌(裁さ~): ‘재단’이라는 뜻이지만 통상 ‘봉제준비작업’을 이르는 말로 쓰임.

마도메(纏め-まとめ): 완성된 옷에 실밥을 제거하거나 단추 등을 다는

손으로 하는 마무리 작업.

마자: 일자 모양의 자를 가리킴.

미미(みみ): 원단 양쪽 끝을 지칭하며 풀어지지 않게 특수하고 두껍게 처리된 곳.

시보리(絞り): 옷 밑단이나 목둘레 소매 밑단에 쓰이는 신축성 있는 편직물.

주로 마무리 원단으로 쓰임.

시아게(しあげ): 완성된 옷을 다리미로 다리는 행위. 현장에서 시야게로

부르기도 함 다림질을 포함한 끝손질을 의미함.

상: 영어 Seam(십)을 일본에서 발음 나는 대로 쓰인 용어.

와이셔츠 등 칼라나 손목에 뺏뺏하도록 넣는 십을 가리킴.

아이롱: 영어 Iron(아이언)을 일본에서 발음 나는 대로 쓰인 용어. 다리미를 뜻함.

아이롱질: 다리미로 옷을 다리는 행위.

이본침(二本針): 니혼바리(にほんはり)라고도 하며, 두 줄로 박는 미싱 기계를

말하며, 기계를 주로 다루는 남자를 니혼바리사라고 부름.



구술기록을 마무리하며 전태일기념관 앞에서
(왼쪽부터 이수호, 김영문, 임현재, 이승철, 최종인)

전태일의 친구들 —2020 전태일노동구술기록 1

2020년 8월 26일 발행

장소 전태일기념관 2층 올림터

전태일의 친구 김영문, 이승철, 임현재, 최종인

펴낸곳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기획총괄 이수호

진행총괄 유현아, 양윤미

진행 문화사업팀 강승연, 강재영, 유충만, 이준하, 오신혜

질문 및 정리 김대현

촬영 허철녕

사진 이효영

편집대행 걷는사람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전화 02 318 0904

팩스 02 318 0881

홈페이지 www.taeil.org

전자우편 teail@taeil.org

ISBN 979-11-970538-6-3

ISBN 979-11-970538-2-5 [04330]세트

비매품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지은이와 전태일기념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